

연혁

1957

- 03.04** 관훈클럽 회원, 서울시청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회합하고 4월 7일이 한국최초의 민간지 독립신문의 창간 61주년에 해당하므로 관훈클럽의 주동으로 유광렬 이관구 오중식 주요한 유봉영 홍종인(가나다순) 등을 초청 동기념행사와 신문주간 설정에 관하여 토의하고
- ① 3월 11일 서울시내 각 일간신문통신의 주필 편집국장 기타 인사를 동준비위원회발기인으로 초청 결정.
- ② 동행사 일체의 실무를 관훈클럽에서 담당 결정.
- 03.11** 경향신문 편집국장 강영수 등 31명이 공보관에서 회동 신문주간 창설준비위원회 구성을 발의.
- 03.13** 김광섭 등 16명이 합동통신 중역실에서 신문주간 준비집행위원회를 열고 신문주간 행사는 가칭 한국신문편집인협회를 결성하여 주최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한국신문편집인협회구성안 작성기획위원 선출.
- ▷ 위원 홍종인 김광섭 고제경 설국환 원경수
- 03.29** 한국신문편집인협회발기인 예비회의.
- 04.01** 고제경 위원 등 17명이 공보관에서 신문편집인협회 발기위원회 소집, 협회규약(설국환 기초)과 신문윤리강령(천관우 기초) 채택.
- 04.07**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창립, 초대회장에 이관구를 선임하고 신문윤리강령을 제정.
- 04.08** 신문주간을 설정, 제 1회 신문주간대회 개최(시공관). 신문윤리강령 선포.
- 12.14**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선거법 개정안의 언론조항을 위헌이라고 반대 성명 발표.
- 12.16** 한국신문편집인협회대표들은 악법 반대투쟁 위해 국회측 대표들과 회담.
- 12.17** 한국신문편집인협회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언론조항 입법화를 반대하는 건의서

제출.

▷ 문충, 언론제한조항 반대 성명 발표.

▷ 민주당, 언론제한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선거법공동제안을 거부함은 물론 총선보이콧 결의.

12.18 이승만 대통령, 선거법개정 불찬성(不贊成) 표명.

중앙법조 출입기자단 선거법 중 언론제한조항 반대결의.

12.21 장면 부통령, 협상선거법 개정안 중 언론조항 삭제를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

12.24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언론제한 조항에 관한 공개토론회 시공관에서 개최.

1958

01.01 언론조항 포함하는 민·참의원 선거법안, 국회통과.

01.05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선거법 중 언론제한조항 반대관철을 성.명

01.08 민주당, 선거법 중 언론제한조항에 관한 경위 및 공약위반을 사과하는 성명서 발표.

01.11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시공관에서 전국언론인 대회를 개최하고 선거법의 언론제한 조항을 반대.

01.18 서울시내 일간신문·통신사, 언론제한반대 공동성명.

01.19 대구언론인, 악법철폐대회 개최.

01.21 부산언론인, 악법철폐대회 개최.

01.23 대전언론인, 악법철폐대회 개최.

01.25 전주언론인, 악법철폐대회 개최.

01.27 광주언론인, 악법철폐대회 개최.

02.19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언론조항삭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04.06 제2회 총회 이관구 회장 재선.

04.07 2회 신문주간 기념행사.

08.16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함석헌과 동아일보 최원각 기자 구속사태에 대해 관계 요로

에 항의문 전달.

- 09.26 최병우 한국일보 기자 금문도 근해서 취재중 실종(한국기자 최초로 중군중 순직).
- 11.17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언론조항 포함하는 보안법 개정반대를 결의.
▷민주당, 보안법 봉쇄에 투위구성.
- 11.21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들어 언론조항 포함하는 보안법 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
- 12.11 보안법반대 전국 언론인대회(당국 방해로 취소).
- 12.23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보안법 개정안 중 언론조항 삭제 위해 이승만 대통령 면담요청.

1959

- 01.21 막사이사이 언론부문수상후보에 홍종인을 추천.
- 02.27 경향신문의 '여적' 필화사건으로 주필·편집국장 회의 소집.
- 04.01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에 신문의 날 휴간을 건의.
- 04.05 제3회 정기총회 회칙개정, 이관구 회장 3선 부회장 오종식.
- 04.06 3회 신문주간대회, '신문의 날'을 4월 7일로 결정 선포, 표어〈언론의 자유〉.
- 04.16 한국신문편집인협회대표 홍진기 법무부장관에게 간첩사건 보도 한계 제시를 요청.
- 05.02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경향신문 폐간처분을 취소하라는 강경성명을 발표 군정법령 88호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
- 05.09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임시총회 열고 회칙개정, 경향신문 폐간처분 취소 연관장운동을 결의.
- 05.12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운영위원회와 보도자유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임시총회의 결의사항을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결의, 전국신문통신사 서명운동을 개시.
- 05.14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이승만 대통령 면담 요청했으나 허사로 그침.
- 05.25 IPI 베를린 총회에 한국신문편집인협회에서 한국의 국가단위가임을 요청하는 전문을 발송,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도 한국의 국가단위가입촉구 결의.

- 06.13 언론자유수호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경향신문을 폐간한 정부처사규탄과 아울러 군정법령 제88호의 무효 등을 결의.
- 70.06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군정법령 제88호의 폐기청원을 국회에 제출.

1960

- 02.14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간부들, 치안국장을 방문 영등포구청 앞에서 일어난 기자구타사건을 항의.
- 02.27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경향신문에 대한 행정조치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 성명 발표.
- 03.14 터키 멘데레스 총리에게 터키신문편집인협회 아메드 알만 회장의 구속을 항의하는 전문을 발송.
- 03.19 한국신문편집인협회, 3.15 마산 발표사건과 취재기자 구타사건에 항의성명 발표.
- 04.04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 IPI도쿄총회에 참석한 대표 170여명을 방한초청 40명이 방한하여 8일까지 시찰.
▷ IPI실태조사단 5명 내한, 4월 7일까지 체한후 IPI당국에“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나라에 신문의 자유가 존재치 않았다. 따라서 본 위원단은 이 나라에 국내위원회 설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건의한다”고 보고.
조사원 : J.P. 보티소타(필리핀), 세브론 브라운(미국), 찰스 이드(영국), M. 찬드라(인도), E.V. 덤블린(뉴질랜드), 실론 C.E.L. 위크레마싱기(스리랑카)
- 04.05 제5회 정기총회 회장에 이관구 4선.
- 04.06 전국언론인대회 개최(시공관), 이 대회서 언론제한 악법의 철폐를 촉구.
- 04.07 제4회 신문의 날 표어<악법의 철폐>.
- 05.04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헌법 제13조 신문 발간허가제 개정을 국회에 요청.
- 06.08 임원총회, 신질서부응태세정비 및 언론정화특별위원회 구성.
- 10.31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기자 품위향상과 사이버기자 근절 등 정화 촉구성명.

- 12.10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박장로 교도의 동아일보 습격사건에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성명 발표.

1961

- 03.03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논산에서의 부패기자 축출 민중데모사태에 전국기자 자질향상을 위한 경고성명 발표.
- 04.05 제6회 정기총회 고재욱 회장 선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한국신문연구소 설치결의.
- 04.07 제5회 신문의 날 표어<신문의 책임>.
- 05.07 제2회 임원총회 개최.
- 07.15 경찰의 집회방해사건, 요로에 항의서한 발송.
- 07.30 신문편집인협회 제7회 임시총회.
- ① 윤리위원 회칙통과
 - ② 윤리강령개정안 및 윤리실천요강 통과
 - ③ 규약개정(5조 1항 신설)
- ▷ 정기간행물등록법안중 제6조, 제7조 5항 명예훼손부분 삭제를 관계 요로에 요청.
- 09.19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일간신문발행인협회 한국통신협회 공동으로 박정희 의장과 각계 요로에 동아일보 이규행 기자 필화사건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해 줄 것을 건의.
- 10.12 편집인협회 회장단, 혁재(革裁)에 민족일보사건 송지영 피고의 관용을 호소.
- 12.16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일간신문발행인협회 한국통신협회 관훈클럽 한국정치 기자협회, 언론인 자가숙정방책을 논의.
- 12.23 편협 발협 통합대표 박의장과 언론인 정화문제 논의.

1962

- 01.19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월요조건 폐지 결의 (주필·편집국장회의).
- 01.26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월요조건 폐지를 일간신문발행인협회에 촉구.
- 04.05 제8회 정기총회 회장에 고재욱 재선.
- 04.06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 서울시내 7개사 종업원 1,600명이 연서로 보내온 「월요조건 폐지」에 관한 건의문을 수리채택.
- 04.07 제6회 신문의 날 표어〈신문의 품위〉.
- 04.14 한국신문편집인협회장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 이사장 명의로 각 일간신문 사장에게 월요조건 폐지 촉구 서한을 발송.
- 04.25 한국일보 이목우 정법태기자 석방 건의.
- 05.09 일본편집인단(8명) 내한.
- 06.20 제9회 임시총회개최(신문인단연합회 구성 문제).
- 07.30 ‘사전(私錢)’ 필화사건 조사단 현지에 급파.
- 08.02 동아일보 7월 28일자 사설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 필화로 고재욱 주필과 황산덕 논설위원 구속.
- 08.04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언론인 구속은 부당하며 즉시 석방하라”고 성명을 발표.
- 11.12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주관, 아세아재단 후원으로 전국 일간신문·통신사의 경제담당기자 및 논설위원 5명 동남아 중동 구미의 경제계획상황 시찰 파견(63.2.7 귀국).
- 11.20 동아일보 필화사건에 건의문 발송.
- 11.28 경제기자단(5명) 동남아 중동 구미에 파견.
- 11.30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일보 필화사건에 관대한 조치바라는 건의문과 성명서를 발표.

1963

- 02.14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조선일보 최계원 기자 구속에 특별법 적용은 부당하며 즉시

인신구속을 해제할 것과 앞으로 이러한 사건은 입건 전에 윤리위원회에 위촉하여 처리할 것을 거듭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 02.21 경제기자 세미나 개최(시찰단 귀국보고).
- 04.05 제10회 정기총회 회장에 고재욱 3선.
- 04.07 제7회 신문의 날 표어<신문의 독립>.
 - ▷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신문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상조치법 철폐를 건의.
- 04.23 한국신문편집인협회, 4.19기념식장서의 기자폭행 사건에 폭력경호원의 신분을 밝히고 의법처단할 것과 경찰의 경비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
- 05.29 한국신문편집인협회주최 경제관계세미나 신문서관서 개최(31일까지).
- 06.09 한국신문편집인협회초청으로 일본 언론인9명 내한.
- 06.26 임원 · 편집국장 연석회의(기자 품위 문제).
- 09.28 운영 · 보도자유연석회의서 베델씨 묘비개수 결정.
- 11.30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지방주재기자들의 다수 입건사태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 발표.

1964

- 02.14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보도자유위원회, 조선일보 압수사건에 대하여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한 당국에 항의할 것을 운영위에 건의 결정.
- 02.15 한국신문편집인협회운영위는 조선일보 압수사건에 관한 보도자유위의 결의 채택, 당국에 항의.
- 03.11 한국신문편집인협회대표 3명, 김동성 공보부장관을 방문 조선일보 압수사건을 엄중항의하고 뉴스원 개방을 요청.
 - ▷ 김 공보부장관, 편협대표들에게 뉴스원 개방을 약속.
- 04.05 제11회 정기총회 회장에 고재욱 4선.
- 04.06 베델(Ernest T. Bethell)개수묘비 제막, 신문편집인협회가 발의, 한국신문발행인협

회와 한국통신협회 공동추진.

- 04.07 제8회 신문의 날 표어〈신문의 공정〉.
- 04.23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데모 취재기자에 대한 군경의 폭행사건에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표단이 최 국무총리에게 항의문 전달.
- 05.15 한국신문편집인협회대표단, 내무 법무 양장관과 검찰총장을 방문하고 경향신문 필화사건으로 구속된 기자를 불구속으로 조사해 줄 것을 건의.
- 05.16 경향신문 필화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민 국장 등 6명 석방.
- 06.05 한국신문편집인협회대표단, 총리·부총리·공보부차관을 방문하고 계엄 선포 이전의 기사관계로 언론인을 구속함은 부당하며 구속언론인의 즉시 석방과 앞으로 구속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
- 06.06 한국신문편집인협회대표단, 민기식 사령관에게 구속언론인 즉시 석방 요청.
- 06.10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한국신문발행인협회는
 - ① 헌정질서의 수호.
 - ② 의회민주주의의 수호.
 - ③ 데모의 난동화와 언론의 절제결함.
 - ④ 일부 군인들의 범원 및 언론기관 침입사건의 철저한 조치 등 시국수습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
- 06.12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한국신문발행인협회대표 23명, 청와대서 박정희 대통령과 간담회.
- 06.24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운영·보도자유·회원심사의 3분위 연석회의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중 언론조항 삭제청원서를 작성, 동 법안의 국회통과저지에 대비.
- 06.30 공화당, 공안유지목적의 파괴행위방지법(언론규제법)을 성안.
 -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보도자유위 긴급소집 공안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입안에 언론을 규제하는 조항이나 법의 삽입은 부당하다는 건의문 작성.
- 07.04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공안유지법 중 언론규제조항 삽입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을 비롯한 요로에 전달.

- 07.14** 한국신문편집인협회대표, 이 국회의장 방문 언론규제입법 반대와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교환.
- 07.15** 한국신문편집인협회대표, 공화당 원내총무단, 당무위원, 법사위원장과 회동하고 언론규제입법의 부당성과 자율적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 교환.
- 07.17** 한국신문편집인협회의 최석채 부회장, 이수영 공보부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동 장관으로부터 여야협상결과를 토대로 언론자율규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확약을 받음.
- 07.22** 한국신문편집인협회 · 한국통신협회 · 한국신문발행인협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 IPI 한국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 대표들 신문회관서 회동하고 신문윤리위원회의 업적과 그 보강여부 및 언론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검토 언론규제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
- 07.24** 언론규제대책위원회 첫모임, 2개 분과위원회 구성에 합의.
 ▷ 언론의 자율규제 문제와 윤리위 구성문제에 대한 검토 위해 제1분위(최석채 김규환 김종규 박권상 최준) 윤리위 재정문제 위해 제2분위(고재욱 김남중 최기섭)를 구성.
- 07.27** 언론규제대책위원회, 신문윤리위 강화방안공표.
 ▷ 언론규제대책위, 공화당의 위헌적 언론윤리위원회 법안을 끝까지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장에게 공개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신문윤리위원회 강화방안을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공화 · 민정 · 삼민회 총무단과 공보부장관에게 전달.
- 08.03**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야반(夜半)국회에서 강행통과된 언론윤리위원회 법안을 위헌적이며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에 대한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언론인대회의 개최를 언론관계 5개 단체 대표자회의에 제안.
 ▷ 5개언론단체 대표자회의는 편협의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종래의 언론규제대책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 언론규제법철폐추진위원회(가칭)를 5개단체 대

표자 25명과 각 신문·통신사의 편집국장, 기자대표 및 주간신문단체, 잡지협회, 방송관계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2인으로 구성할 것을 결의.

- 08.05** 전국언론인대표 42명은 신문회관서 회동 정부가 공포한 언론윤리위법의 전면철폐가 관철될 때까지 장기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 언론규제법 철폐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투쟁위원회로 개칭, 위원장에 유봉영을 선임.
- 08.10** 신문·통신·방송 등 각 언론계대표 500여명이 참석하여 신문회관서 전국언론인 대회를 열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언론윤리위법 철폐투쟁을 결의하는 결의문과 선언문·건의문 채택.
- 08.12** 10일 언론인대회서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 및 국회의장에게 전달.
▷ 광주와 대구 언론인 언론윤리위법철폐투쟁위원회를 결성.
- 08.13** 강원도 언론인, 언론윤리위법 철폐투쟁위를 결성.
▷ 주일한국기자단, 10일 언론인대회서 채택된 선언문을 전적으로 지지 결의.
- 08.15** 언론윤리위법 철폐투쟁위는 정부의 윤리위법 정당화 위한 선전 즉각 중지 요구.
- 08.18** 경기 충북 경북 언론인들 대회를 열고 언론규제법 철폐투쟁을 다짐.
- 08.20** 한국신문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한국신문발행인협회의 서면회답 결의는 일권이라고 성명.
▷ 인천, 청주 언론인 악법철폐투위 결성.
- 08.25**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회칙개정에 동의.
- 08.27**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언론윤리위법에 의한 첫 윤리위소집, 발행인협회에 거부할 것을 호소.
- 08.31**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정부의 보복조치 즉각 중지와 발행인협회의 윤리위 소집강행에 항의 성명.
▷ 언론윤리위법철폐투위, 발행인협회결의에 구애 않고 투쟁할 것을 성명.
- 09.01** 언론윤리위법 철폐투위 유봉영위원장 “사단위 이탈은 해당사의 편집인 및 기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
▷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의 4개사 편집국장 “당국의 보복조치는

비인간적 처사”라고 공동성명 발표.

▷ 정부출입기자단, 보복조치 중지를 요구.

09.02 한국일보 Korea Times 서울 경제신문기자 일동, 발행인과 사주의 자의에 거부하여 언론자유수호를 결의, 편협과 기협에서 전폭지지를 성명.

▷ 국제신보 영남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편집사원들은 발행인의 의사표시(언론윤리위소집 찬성)와는 관계없이 언론자유수호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 편협, 이에 격려전문.

▷ 재야 4당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대표들이 참석하여 자유언론수호국민대회 발기준비대회를 구성.

09.03 야당, 국회서 특정신문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해 대정부 질의.

09.04 박대통령, 정부가 취한 언론기관에 대한 지나친 조치는 즉각 중지하라고 지시.

▷ 각의, 언론기관에 대한 보복조치 취소를 의결.

▷ 언론윤리위법 철폐투위 유위원장 “보복조치중지는 환영할 바이나 악법 철폐에 용단 있기를 바란다”는 담화 발표.

▷ 자유언론수호국민대회 발기준비회의, 범국민운동 전개방침을 결정.

09.05 IPI, 한국의 언론윤리위법에 대해 박대통령에게 항의.

09.08 언론인대표, 유성으로 박대통령을 방문, 자율적 규제강화를 전제로 언론윤리위법 시행보류를 요청(유봉영 고재욱 최석채 홍종인 김규환 이환의).

09.09 박대통령, 언론윤리위법시행 보류와 윤리위 소집을 무기연기한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

09.10 언론윤리위법철폐 투쟁위원회를 자진 해체.

▷ 박대통령, 언론계대표들과 사후대책을 협의.

▷ 자유언론수호연맹발족, 위원장에 함석헌.

11.21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보도자유위 긴급 소집 조선일보 압수사건 및 기사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

11.30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방일시찰단 일행 14명(단장 고재욱)이 일본방문(일본신문협

회와의 상호시찰단 교환계획으로 파견).

12.12 사상계 '월남 언론상' 한국신문편집인협회를 선정.

1965

- 01.09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한국신문발행인협회에 호의 남발과 각급학교 합격자명단발표에 불필요한 경쟁 지양 요청.
- 01.12 유공언론인 5명을 선정 (서재필 장지연 양기탁 장덕준 최병우).
- 03.08 서울시는 14회 서울시문화상 언론부문상에 한국신문편집인협회를 선정(신문의 품위향상과 권익옹호에 유공).
- 03.11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기자협회, 한양대생들의 경향·동양 난입사건과 정간 강요 등은 용납 못하며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각각 성명 발표.
- 04.03 유공언론인 초상화완성.
- 04.05 제12회 정기총회 규약을 회칙으로 개정하고 회장에 고재욱 부회장 최석채 선임.
▷유공언론인 초상화 신문회관에 게시.
- 04.06 제9회 신문의 날 표어<신문의 성실>.
- 04.15 한국신문편집인협회대표 최석채 김규환, 대검총장 서울 지검검사장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을 방문 합동통신의 송병호 기자의 석방을 건의.
- 05.03 한국신문편집인협회등 10개 언론단체가 코리아하우스에서 6개항의 마스크 윤리 선언을 채택.
- 05.14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부산일보 필화사건에 동건은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지 3개월이나 지났으며 이미 윤리위에서 재단한 것을 당국에서 재차 문제 삼는데 주목하고 회장단과 당국과의 협의결과를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인신 구속을 즉각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
- 07.02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보도자유위를 긴급 소집 비밀보호, 보안조사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예의 주시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상정과 통과저지에 각 언론단체간의 제휴를 제의.

- 07.29** 김해공병학교 군인의 김해 경찰서 습격사건을 보도한 부산일보 김해주재 특파원 최임조, 경향신문 주재 특파원 권도호 기자를 부산 방첩대 군인들이 강제 연행. 가혹한 행위를 하고 한국일보주재 조기자에 대한 심야 테러사건 발생, 편집인협회와 기자협회에서 임홍빈과 김영수를 진상 조사차 현지에 급파.
- 08.05**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운영·보도자유위와 한국기자협회의 회장단과 보도자유위의 연석회의에서 김해기자폭행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접수.
- 08.06**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기자협회, 김해사건의 경위 및 조사단의 보고서를 발표(동사건에 관련된 김해공병학교장 정준장은 9월 1일 부로 예편).
- 09.09**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단 및 상위원장(常委員長)회동, 언론인에 대한 계속적인 테러사건의 진상조사 및 대책을 마련키로 결의.
- 09.13**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보도자유위는 공동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무부장관, 치안국장 등을 면회하려 했으나 본인들의 회피로 실패.
- 09.17** 편협과 기협이 특별대책위, 잇따른 언론인에 대한 테러가 특히 위수령 발동 하에 일어났음에 비추어 정부당국에 검·군·경 합동수사반 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조속한 사건처리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 09.23** 군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군인의 관련혐의가 없다고 발표, 경찰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자 특별대책위로서는 이 사건을 더 이상 다룰 수 없어 특별위를 해체.
- 10.22** 한국신문편집인협회주최 제1회 언론관계세미나 개최(24일까지 온양).
- 12.24**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보도자유위를 소집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매일신문의 김국장을 비롯한 편집간부 3명을 불구속 수사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
- 12.29**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매일신문 필화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와 신문 간의 대공관계 보도에 관한 명확한 한계와 원칙이 조속히 합의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
- 12.30**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해를 넘기는 각종 언론인 테러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1966

- 01.26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운영위와 보도자유위, 경향신문사 공매처분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
- 03.19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언론관계 제2회 세미나 개최(유성온천서 21일까지)
- 04.05 제13회 정기총회 회장에 최석채 선출.
- 04.07 제10회 신문의 날 표어<신문의 긍지>.
- 04.15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초청으로 일본 매일신문 사장 上田 등 언론인 13명 내한(20일 떠남).
- 05.05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동아일보 최영철 기자 테러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나도 수사에 아무 진전이 없음을 증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을 매듭지을 것을 촉구.
- 06.04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초청으로 중국신문편집인단 7명 내한(정유동 외 5명, 9일 떠남).
- 07.21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동아일보 권오기 차장에 대한 테러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 09.30 국내주요 일간신문·통신사 및 방송국 정치부장 19명은 성곡재단 후원 제일거류민단 초청으로 제일동포 실태파악 위해 일본 방문(단장 원경수).
- 11.7 제1회 한·일편집간부세미나.
동경서 9일까지 개최(한국측 천관우 등 9명, 일본측 20명 참가).
- 11.17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정부서 추진중인 새 언론법을 반대하는 성명 발표.
- 12.05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성곡언론문화재단 공동주관으로 각 신문·통신사의 주필, 편집국장 및 방송국 간부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동남아 시찰단 18일 귀국 예정으로 출발(단장 최석채).
- 12.28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기자협회, 긴급회의를 열고 강원일보 한영달 기자 테러사건에 대한 공동 진상조사단을 파견.

1967

- 01.06**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공동으로 강원일보 한기자 테러사건에 대해 “취재를 방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고 국방 및 공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항의문 전달.
- 02.17** Mr. Chu Van Bink 등 월남언론인 19명, 한국언론계 시찰차 내한(27일 떠남).
- 03.02**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제3회 마스크관계세미나 개최 (유성서 4일까지 주제=언론과 법률).
- 03.21**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언론인 좌담회를 개최.
- 03.27**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초청한 일본언론인 교토통신 편집국장 高田秀二 등 21명 내한(4월 2일 이한).
- 04.05**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서 이관구 외 15명의 언론 유공자와 6개 언론단체를 표창.
- 04.06** 제11회 신문의 날 표어<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자> 정부는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7개 언론단체와 5명의 언론 유공자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및 공보부장관의 표창장을 수여.
- 04.14**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임원총회는 유공언론인기념준비위를 해체하고 새로 유공언론인추모사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 09.26** 제2회 한·일편집간부세미나.
서울에서 「정치와 방위문제」 중심으로 토의 개최.
- 10.02**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위암 장지연선생 46주기 맞아 경남 창원군 귀산면 현동리 독마산 묘소에서 묘비제막식 가짐.
- 11.10**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제4회 마스크 관계 세미나 개최 (유성서 11일까지).
- 11.21**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지면의 조속한 증면과 그에 따른 용지 확보에 행정적 협조있기를 희망하는 결의문 발표.

1968

- 02.28 한국일보 화재에 위문 서한.
- 03.06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운영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개정회칙안을 인준.
- 03.13 각사 주필·편집국장에 공한으로 12일자 기협성명을 다룬 각 신문의 자세에 안타까움을 표시.
- 03.14 최석채 회장, 중앙정보부로 김형욱 부장을 방문 동아일보 기자 연행을 항의하고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요구, 김 부장은 다시 유사한 연행사건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
- 03.15 전 회원심사위원 정윤조 별세 (60세).
- 04.05 제15회 정기총회.
- 04.07 제12회 신문의 날 표어 <신뢰받는 신문>.
- 06.24 제3회 한·일편집간부세미나. 일본신문협회서 개최. 한국측 최석채 등 12명 참가.
- 07.17 편협, 대전일보 이지영 기자 구속사건 조사.
- 07.22 대전일보 필화사건에 절차 따른 보도관제 요청을 촉구하는 공한을 홍종철 문공부장관에 발송.
- 07.29 동양통신필화사건(군기)에 기협과 공동조사단, 5,000자에 달하는 필화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접수하고 언론자유 침해는 물론.
- ① 군기누설이 될 수 없고
 - ② 수사권을 남용,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위협처사이며
 - ③ 반민주적 행위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 구속기자의 즉각 석방을 촉구.
- 08.03 회장단, 정일권 국무총리를 방문, 동양통신기자구속 및 언론인 무더기 환문을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 홍종철 문공부장관은 회장단 및 기협대표와 만나 보도관제요청 촉구 공한에 대해 그 취지를 존중, 각급 수사기관에 통첩하여 보도자유를 적극 존중할 것을 약속.
- 08.08 신문편집인협회 임원총회 열고 언론자유 침해 강력투쟁을 위한 체제개혁안 설치를 결의, 9일에는 동체제개혁위원을 선임.

- 08.21 체제개혁 연구위설치.
- 09.11 편협·기협 회장단 연석회의, '언론자유 확보를 위한 합의서' 발표.
- 09.24 신문편집인협회 운영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서 제의한 상설협의체 편협안을 마련.
- 11.08 제5회 언론관계세미나(주제 : 신문과 경제. 서귀포 4일간).
- 11.27 편집의 자주성확보연구위 구성.
- 11.30 신동아지 필화사건에 기협과 공동성명 발표.
- 12.04 신동아지 필화사건 대책위 구성.
- 12.21 신문편집인협회 운영·보도자유 연석회의에 최석채 회장 사표.

1969

- 01.25 제16회 임시총회, 회칙개정, '자유언론의 수호' 결의, 최석채 회장 재선.
- 02.20 신문편집인협회 운영위원장에 홍승면.
- 03.03 일본신문·통신·방송의 외신부장단 12명 초청(6일간 체류).
- 03.10 경북지부 결성을 비롯 3월중 각 시·도지부결성완료.
- 04.07 제13회 신문의 날 표어<신문의 자주>.
- 05.01 베델선생의 60주기를 맞아 편협 임원과 트랜치 주한영국대사 및 많은 내외 귀빈이 선생의 묘소를 참배.
- 05.14 제4회 한·일편집간부세미나. 경제문제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
주제 : 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선진국의 역할과 후진국의 입장 (안재준 동아일보 논설위원).
한일 경제 교류의 현황과 그 문제점 (이규동 중앙일보 논설위원).
- 11.04 제5회 한·일편집간부 세미나. 「아시아의 안보와 지역개발」 주제로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
- 11.28 제6회 마스크관계 세미나.
주제 : '한국언론의 현실진단' (유성 만년장)

- 12.04 ① 안보문제에 관한 정부와의 협의기구.
 - ② 회원권익옹호.
 - ③ 민방 보도부문 종사자의 편협 입회문제 등을 연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 12.08 신문협회에 증면촉구 공한.

1970

- 01.31 제17회 정기총회.
- 02.10 대한일보 양평주재 한대회 기자 테러사건에 성명발표.
- 03.02 제1회 아시아편집인 세미나.
주제 : 아시아를 보도한다 (세종호텔 3일간)
- 04.06 제14회 신문의 날 기념식 표어<나라와 겨레와 함께 뻗는 신문>.
- 05.23 대구일보 편집인 모욕사건에 대해 편집인의 위신회복을 촉구하는 공한을 대구일보 사장에 전달.
- 06.01 매스컴관계 국제회의참가 회원, 보고 간담회.
- 06.27 진주 경찰이 경남일보 손현두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하고 손강호 편집국장 직무대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한데 대해 조사단 파견.
- 08.17 이도형 기자(조선) 구속사건에 기협과 긴급 회장단회의를 소집, 비상한 관심을 표시하고 대응책을 마련.
- 08.21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을 보도한 언론기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이는 민주헌정질서의 침해”로 단정 즉각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 08.31 제6회 한·일편집간부세미나. 「신문 문화면 제작자 입장에서 본 한일교류」 주제로 일본 오오사카에서 개최.
- 11.11 제7회 한·일편집간부세미나.
「일본교육제도의 변천과 전망」과 「한일양국의 생활문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

12.04 제7회 매스컴관계 세미나.

주제 :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 (번협공동=유성 만년장 3일간)

1971**01.30** 제18회 정기총회, 제12대 회장단 선출.

· 회장 원경수(동양통신상무) 부회장 홍유선(한국일보 부사장겸 편집국장) 박인성
(전남일보주필)

· 운영위원장 홍승면(동아일보 편집국장) 심사위원장 김승한(중앙일보 논설주간)
보도자유위원장 김경환(조선출판국장) 감사 안정모(서울경제 편집국장) 오정환(동
화편집 1부국장)

· 고문 고재욱 오중식 홍종인 최석채

03.30 신문편집인협회 보도자유위원회, 대학생들의 언론규탄에 대한 대책을 논의.**04.01** 운영위는 본회 신문연구소 대표 최석채씨 임기만료로 원경수 회장을 선출.**04.06** 제15회 신문의 날 기념식(신문회관에서 신문협회 편집인협회 기자협 공동 개최,
표어<신문인의 단결>.**04.30** 제7회 매스컴관계 세미나 '기본권과 언론' 출간.**05.06** 제4차 운영위는 위원장에 박권상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선출.**05.11**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회장단, 중앙정보부 방문, 언론정책에 관해
협의하고 편협 회장의 언론자유 창달을 위한 협력요청 공한을 중앙정보부장에게
전달.**05.18** 편협보 월 2회 발간시작.**06.05** 편협 시도지부장 회의(유성),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언론인의 자세, 기자노조 문제
등 논의.**06.25** 전 주일미대사 에드윈 라이샤워 교수 내한, 편협주최 간담회 개최.**07.05** 한국기자협회 기협기장 수여식(5명)에 편협서 부상전달.

- 08.04 편협은 전임 최석채 회장의 재임중 노고를 치하 청진 이상범 화백의 산수화를 증정.
- 09.20 제8회 한·일편집간부세미나.
「국제보도와 국가이익문제」와 「한일양국관계 보도의 재검토」서울서 개최.
- 10.06 기자협회의 '취재기자 책임 한계질의'에 편집인협회서 공식회답.
- 10.12 편협임원총회, 언론인의 품위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보도자유위원회에 이목우(한국일보) 문도상(동양통신) 선출.
- 10.16 긴급선언문에 서명한 김경환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보도자유위원장(조선일보 논설위원) 퇴사.
- 10.30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기관원의 언론기관출입과 보도에 대한 간여 및 일선취재기자 등에 대한 연행사태 시정을 촉구하는 공한 전달, 양 협회는 전국일간신문·통신·방송 사장과 편집국장에게도 공한 발송 협조요청.
- ① 언론인연행 취재방해 등 자사·타사 모두 보도한다.
 - ② 양 협회는 언론방해사건이 있을 경우 공동조사, 대책을 강구한다.
 - ③ 양 단체의 상설협조기구의 기능 강화.
- 11.12 제8회 매스컴 세미나 개최 (유성 만년장 회의실) '한국언론의 당면과제' 주제로 각 신문·통신·방송주필, 편집국장급 60여명참가, 주한 미국공보원 인사도 참석.
- 12.17 한국신문협회·통신협회가 언론정화를 결의하면서 프레스카드제 실시키로 하자 언론인 홍종인 편협 고문이 프레스카드 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서 발표.
- 12.18 전 보도자유위원(조선신문학원 설립자) 광복산 교수 별세(60세).

1972

- 01.12 제11차 운영위서 신문회관사원(이사) 10명을 추천(원경수 홍유선 강영수 김광섭 변영권 유건호 윤임술 이자현 천관우 최석채).

▷ 신문협회안 광고윤리 강령 인준.

- 01.25** 제12차 운영위는 동화통신 정재호 사장에게 사원 33명을 집단면직시킨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면직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을 청하는 공한발송.
- 01.29** 제19회 정기총회(신문회관)서 비상 사태에 대처할 편집인들의 결의문 채택.
- 03.29** 제11차 보도자유위는 군수사기관의 언론인연행사건에 대해 27·28일에 걸쳐 경향신문 대한일보 신아일보 중앙일보 및 동아방송 등의 편집국장 3명을 포함한 사건을 검토하고 이는 자유언론에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단정, 국방부장관에게 “앞으로 보도기사와 관련한 군수사기관의 환문금지와 불가피한 경우라도 적법절차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항의문 작성.
- 03.30** 전기 항의문 국방부장관에게 전달.
- 04.06** 신문의 날 기념식(신문협·통신협·편협·기협공동) 행동목표 표어<용기와 긍지 없이 신문의 양식 없다>.
- 06.21** 일본 기자클럽 간부 3명 초청, 高田秀二(교토통신 상무) 石田英一(산케이신문 편집국장) 白神勲(요미우리신문 논설주간).
- 07.24** 회장단, 상임위원장간담회서 원경수회장과 박권상운영위원장을 언론기금이사로 선정.
- 08.27** 편집인협회, 유성서 지방신문 편집간부세미나 개최.
- 08.28** 남북적십자회담 자문위원 편집간부 3명 선임(송건호 보도자유위원, 양홍모 보도자유위원, 조덕송 심사위원).
- 11.20** 일본아사히신문 野上正논설위원 방한 초청.
錢復(자유중국행정원 신문국장) 江頭數馬(일본마이니치신문 편집위원) 上田健一(일본마이니치신문 논설위원) 山崎隼(니케이신문 논설위원) 협회 방문.

1973

- 01.19** 제9회 마스크 세미나 (서귀포).

- 01.27** 제20회 정기총회, 회장단선출 회장 원경수(동양통신 주필) 부회장 홍유선(한국일보 편집인) 박인성(전남일보 주필).
- 02.09** 운영위원장 김경환(대한일보 편집국장) 심사위원장 김승한(중앙일보 논설위원장) 보도자유위원장 송건호(동아일보 논설위원) 선출.
- 03.23** 신문회관서 임시총회 열고 회장에 유건호(조선일보 편집국장) 선출, 전회장 원경수 대한공문사 이사장 취임.
- 04.03** 4개 언론단체(신문협회·통신협회·편집인협회·기자협회) 신문의 날 기념행사 준비위는 각종 기념일 축소방안에 호응하여 신문의 날 기념행사를 양기로 한다는 신문협의 결정통고로 행사 중단.
- 04.18** 시도지부 임원개편.
 ▷전북지부장 서정태(전북매일 편집국장) 간사 최병효(전북일보 사회부장)
 ▷전남지부장 양동균(전남매일 부주필) 간사 최승호(전남매일 편집부국장)
 ▷부산·경남지부장 이광우(국제신보 편집국장) 간사 이상윤
 ▷경기지부장 조수일(경기일보 주필) 간사 이백(경기일보 편집국장)
 ▷충북지부장 정제모(충청일보 편집국장) 간사 우영(충청일보 지방부장)
 ▷강원지부장 남궁철(강원일보 편집국장) 간사 조남진(강원일보 논설위원)
- 05.03** 동화통신사원 진정 접수하고 각 신문·통신사 발행인 및 편집국장에게 구제요청 공한.
- 05.21** 김경환 운영위원장 사퇴로 이지웅(동양통신 편집총국장) 선출.
- 06.15** 대한일보 폐간으로 실직한 대한일보사 권익옹호대책위 호소에 접한 회장단(회장 유건호)은 윤주영문공부장관을 방문 다수의 실직언론인이 생긴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취업알선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받음.
- 10.25** 제10회 마스크 세미나 (주제:신문과 교육) 유네스코 후원으로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개최, 세미나에는 교육계에서도 참가, 편집간부 등과 신문의 교육적 기능을 다각토론.

- 12.05** 회장단회의(정·부회장 및 각 상임위원장 포함)를 열고 언론통제 지양 등을 요구하는 4개항의 결의문 채택.
- ▷국제인권 옹호연맹서 편협 결의 지지 성명.
 - ▷신민당서 자유언론의 억압은 부당하다고 성명.
 - ▷김종필 국무총리, 각 신문·통신·방송국 사장과 편집국장 보도국장을 초청대화.
 - ▷김 총리 각의서 언론자유 최대한보장을 지시.

1974

- 01.25** 편협 제22회 정기총회 74년도 예산 7백38만원(운영기금 14만원 제외) 확정.
- ▷궐석중인 감사에 김광섭(합동통신편집인) 선출.
- 03.01** 북괴합정이 서해에서 어로중인 우리 선박을 격침, 어민을 납치한 북괴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4개 언론기관단체와 공동으로 발표.
- 04.06** 제18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신문협 통협 편협 기협 공동개최) 표어<신문의 사명>.
- 05.04** 편협보도자유위원회는 신문회관서 긴급회의를 열고 박영부 사건보도와 관련 검찰이 중앙일보 이원기 기자를 구속한 문제를 토의하고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법정신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이기자를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짓고 즉각 석방 요구 결의.
- 05.06** 보도자유위 결의에 따라 유건호 편협회장과 홍유선 부회장 송건호 보도자유위원장 박홍서 사무국장이 김치열 검찰총장을 방문 구속 이기자의 즉각 석방을 요구.
- 05.09** 중앙일보 이원기 기자 석방(검찰 이우현씨 고소취하로 불기소).
- 06.19** 문공부·편협·신문협·방협·통협·기협대표 한국언론인금고 설립문제논의.
- 08.30** 장지연선생 묘소관리에 힘쓴 마산시 현등국민학교에 감사패와 기념품 전달.
- ▷제10회 언론세미나 내용담은 '신문과 교육' 제10집 발행.
- 10.24** 제11회 매스컴세미나 충무관광호텔서 개최.
- 주제 : 신문과 공보행정

- 12.20 편협은 박경원 내무부장관에게 11월 30일 서울운동장에서 경비경찰관들이 취재 중인 이원기 기자에게 집단폭행한 사건을 20일이 지나도록 하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하루 빨리 가해자를 색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

1975

- 01.15 편협 회장단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이래 일선 기자들의 언 론자 우수호운동은 당연하고 순수한 것이라고 평가, 동아일보광고 집단해약 사태는 곧 시정되어야 하며 발행인·편협·기자들은 공동운명체란 성명서 발표.
- 01.25 편협 23회 정기총회, 회장단 감사유임.
▷일간신문 통신사 출판국 간부와 방송국 보도부문에 종사하는 간부들도 입회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회칙개정.
- 01.30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
· 운영위원장 이지웅(동양통신편집총국장) 유임.
· 보도자유위원장 신용순(동아일보 편집부국장) 신임.
· 심사위원장 김승헌(중앙일보 주필) 유임.
- 01.31 보도자유위원회는 편협보편집위원 5명선출.
· 위원장 신용순
· 위원 신우식(서울부국장) 이규태(조선 수석부국장) 윤석인(동양통신부국장) 조순환(한국 외신부장)
- 06.30 정부의 언론계 정화방안 일환으로 일부 중앙관서 및 서울시경 경기도경을 제외한 경찰국과 일선경찰서의 기자실을 7월 1일부터 폐쇄조치한데 대하여 “취재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당국의 재고를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
- 09.10 보도자유위원장에 남재희(서울 편집국장) 보선.
- 10.23 제12회 마스크세미나 경포대서 개최.

주제 : 신문과 농촌, 신문과 사회정화

1976

- 01.23** 제24회 편협정기총회 결석중인 감사에 권혁승(서울경제편집국장) 보도자유위원장에 이방훈(동양방송 보도국장) 보선.
- 04.06** 제20회 신문의 날 기념식.
· 표어〈사회복지에 앞장서는 신문〉.
- 04.29** 국어순화 다룰 상설기구설치에 의견을 모아 정부에 답신(학계 출판 언론계 망라하여 외래어표기도 다루도록).
- 06.11** 한일편집간부세미나(일본구마모토에서) 한국측 14명 참가(손세일 동아논설위원, 이중환 서울문화부장, 정육수 신아논설위원, 조영서 조선편집부국장, 정갑수 중앙편집부국장, 오양동 매경사회부장, 전영학 코리아헤럴드 논설위원, 홍원태 합동통신 지방부장, 이형기 국제논설위원, 김은식 매일편집부국장, 신용호 전남매일편집부국장, 장효상 MBC정치부장, 이주호 동양통신기획부장, 윤임술 신문연구소장)
- 06.22** 동아일보 명예회장이며 제2대 편집인협회 회장 고재욱박사 별세 향년73세.
- 09.02**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각사 간부의 인사 공동계재 공한을 각사 사장에게 송부.
- 10.20** '보도용어의 통일' 이란 주제로 경주서 제13회 세미나 개최 ▷편협산하에 보도용어통일심사위원회 설치를 건의.
▷편협의 건의 받아들여 심의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심의위원은 운영위원 소속사에서 1인씩 발행인에게 추천 의뢰하며 위원장에 홍유선 부회장을 선출.
- 10.26** 편협 전부회장 오중식 별세.
- 11.17** 편협은 보도용어통일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선 '외래어표기통일안' 부터 착수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 자문위원도 위촉.
· 자문위원 계창호(한국일보 편집위원) 박갑천(서울신문 논설위원) 이병호(문교부 편수관)

· 심의위원회 위원장 홍유선(편집부회장) 위원 신동백(경향 교정부장) 안태양(동아 교열부장) 박용규(서울 교정부장) 유창선(신아 교정부장) 서강화(조선 교열부장) 이윤표(중앙 교정부장) 김관용(한국 교정부장) 김천명(동양 교정부장) 조익규(합동 부국장) 김영빈(국제 부국장) 안상직(강원 교정부장) 박노철(충청 부국장) 이용호(충남 논설위원) 홍중훈(매일 교정부장) 이한형(전북 논설위원) 김종명(전남 교정부장)

1977

- 01.22** 제8차 운영위는 보도용어통일안(1집)의 심의를 마치고 신문협회에 송부.
- 01.29** 제25회 '편집정기총회' 회장단유임(회장 유건호 부회장 홍유선 박인성) 감사 2명도 유임(김광섭 권혁승).
- 02.05** 제1차 운영위서 남재희 위원을 위원장에 재선출, 제1차 보도자유위서 신용순 위원을 위원장에 재선출, 제1차 심사위서 금승한 위원을 위원장에 재선출.
▷보도용어통일안 2집(외래어표기통일안)의 심의 끝내고 이의 준용을 신문협회에 요청기로 함. 본회 제정 보도용어통일안(외래어표기) 신문협회서 4월 1일부터 준용하기로 의결.
- 03.18** 운영위원회 남재희 위원장, 소속사 직위변동으로 사임하고 후임 위원장에 임철규(동양통신 편집국장) 선출.
- 04.01** 편협 제정 '보도용어통일안' 제1·2집, 언론 각사에서 채택·실시.
▷편집창립 20돌을 맞아 자축연. 이날 유건호 회장은 전임회장 이관구 최석채 원경수 고문에게 감사패, 임원을 장기연임한 김광섭 감사에 기념품 증정하고 사무국에 장기근속한 박홍서 사무국장과 우상재 간사를 표창.
- 04.19** 편협은 외래어표기통일안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자는 건의서를 관계 각 부처에 전달.
- 06.09** 15회 한일 편집간부세미나(코리어나호텔), '신문편집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읽히

는 신문을 만들기 위한 노력' '편집부의 현상과 금후의 방향' 등에 관해 토론.
참가자는 일본측 池田龍夫(마이니치신문동경본사 정리부장) 외 12명 한국측 한갑수(동아일보 편집부장) 외 10명.

- 08.03** 편협은 자유중국언론인단 단장 常崇寶(편협비서장·중국시보총 편집) 등 8명을 초청, 우리 언론인들과 교환.
- 10.13** 편협은 '청소년 문제와 언론' 주제로 제14회 매스컴세미나를 용평서 개최, 전국 일간신문 통신 방송의 편집·보도편성간부들이 참석하여 '청소년문제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 토론.
- 12.** '청소년문제와 언론' 주제 세미나 내용담은 '세미나 14집'을 출판.

1978

- 01.28** 제26회 정기총회, 2,353만원의 예산안통과, 보도자유위원 2명과 심사위원 2명을 보선.
· 보도자유위원 : 채광국(서울신문 편집부국장) 양정석(동양방송 보도국장)
· 심사위원 : 박재순(내외경제 편집국장) 정용석(동아일보 논설위원)
- 02.29** 편협은 보도용어통일을 위한 외래어표기 제2집을 출간(인명 2,700수록).
- 03.07** 편협운영위원회, 신문주간을 맞아 신문주간을 상징하는 내용의 특별기사를 2회 이상 다루도록 권유키로 결의.
- 04.06** 제22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신문협 통신협 편협 기협 공동개최) 표어〈독자에 봉사하는 신문〉.
- 04.14** 편협운영위, 13개항의 보도용어통일심의위 운영규정 제정.
- 06.07**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단, 문교부장관을 방문“현재 외래어를 표기할 때 교과서의 교육용어와 신문의 보도용어가 서로 달라 불편과 혼란을 일으킨다”고 지적, 문교부가 중심이 되어 통일될 수 있도록 추진 요청.
- 07.24** 남덕우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장관과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및 기자협회 임원들과

의 간담회, 문공부주최로 열림.

- 09.21 '외래어 표기의 통일'을 주제로 전국 신문 통신 교정부장세미나 3일간 유네스코 후원으로 이천서 개최.
- 09.27 한국신문편집인협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에 유승범 합동통신상무이사 겸 편집국장을 보선.
- 10.19 제15회 연례 매스컴세미나, 제주서 개최.
주제 '고도성장경제하의 언론의 과제'
- 11.30 편협은 주 48면 발행하고 있는 신문의 지면을 주 4면 추가 증면하도록 신문협회에 건의.
- 12.12 제10대 국회의원에 편협회원 4명 당선 남재희(서울신문주필) 조세형(한국일보 국장) 김영수(문화방송국장) 김윤환(조선일보 국장대리)

1979

- 02.02 편협 제27회 정기총회.
79년도 예산안 3,070만원 통과, 유건호 회장을 비롯 회장단 유임.
- 02.09 편협운영위는 전임 유승범 위원장의 소속사 직위변동으로 노철용 동양통신 편집국장을 위원장으로 선출.
- 02.14 편협보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신용순 채광국 갈천문 김해도 신찬균.
- 03.13 극동순방중인 윌리엄 디드즈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지 편집국장을 맞아 국내 편집인들과 간담회.
- 04.06 제23회 신문의 날 기념식.
· 표어<독자가 참여하는 신문> 선언문 채택.
- 04.20 홍유선 부회장, 한국일보 사장취임으로 사임.
편협 고문으로 추대.

- 05.23 전운영위원 조동훈 별세(63세).
- 05.24 편협은 공석중인 보도용어통일심의위원장에 이우세 서울신문 편집국장을 선출.
- 07.19 전운영위원 심정섭 별세(68세).
- 07.30 신문편집인협회 회장과 대한공론사 이사장을 역임한 원경수 별세.
- 08.13 편협회장단 (유건호 회장 노철용 운영위원장 신용순 보도자유위원장 박홍서 사무국장)은 구자춘 내무부장관을 방문하고 11일 새벽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 무역 여공들을 해산시키는 자리에서 경찰이 취재기자들을 폭행한데 대하여 엄중 항의. 편협은 이날 항의에서.
- ① 경찰관의 기자 폭행사건에 대하여 사과할 것.
 - ② 기자에게 폭행한 경찰을 색출, 처벌할 것.
 - ③ 앞으로 기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
- 10.18 편협주최 제16회 매스컴세미나 구미서 개최 '신문 제작상의 문제' 를 주제로 '취재 보도의 문제점' 과 '한국신문편집의 과제' 토론.
- 10.20 전 심사위원장 이건혁 별세(79세).
- 12.11 편협운영위 결의에 따라 대표단(유건호 회장 노철용 운영위원장 권오기 김동익 신동호 유일연 임승준),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방문 신문검열의 완화와 검열업무의 신속 처리를 요청.

1980

- 01.24 편협 제28회 정기총회 궐석중인 부회장에 조용중 경향신문사전무, 감사에 조성천 합동통신 편집부국장을 선출 3,400만원의 예산안통과.
- 03.19 편협은 계엄당국의 언론검열 실태가 건전한 언론의 양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이 가혹한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발표.
- 04.07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올해 신문의 날 표어로 정하고 제24회 신문의 날 기념식. 이날 대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무엇으로도 제약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이어서

- 하며 책임 역시 어떠한 경우라도 타율이 강요될 수 없는 지렛대”라는 선언문 채택.
- 04.26** 전 운영위원장 홍승면 별세(56세).
- 05.05** 제29차 IPI총회(Florence)에 이원경, 김종규, 이환의, 정진기, 김동익, 신동호, 권오기, 박권상, 신영수, 홍경모, 김희중, 이해창 등 12명 참석.
- 06.09** 계엄사령관, 유엔비어 유포등 혐의로 문화방송, 경향신문, 조사국장 서동구 등 언론인 8명 연행 조사중이라 발표.
- 60.20** 아시아신문재단(PFA)의 고재욱기념언론상 제4회(1980년도) 수상자로 한국일보 주필 주효민 결정.
- 11.5** 한일편집간부세미나.
도쿄기자클럽에서 신문·방송·통신사의 편집국장급 언론인 54명이 참석.
“80년대의 한일관계-아시아 신시대에 있어서의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주제로 남시욱 동아일보편집국장과 宮田니시니폰신문 편집국장이 각각 주제발표.
- 12.16** 입법회의문공위는 기존 신문·통신등록법과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통합하여 「언론창달에 관한 법률」로 가칭하고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 발표.
- 12.26** 입법회의, 언론기본법 통과(81. 1. 1.시행).

1981

- 01.30** 제29회 정기총회, 유건호 회장 유임, 감사에 손기상 중앙일보 편집국장 대리 선출.
- 02.06** 각상임위를 열고 위원장선출, 운영위원장에 송용식(연합통신 편집국장) 보도자유위원장에 채광국(서울신문 편집국장) 심사위원장에 윤종현(한국일보 논설주간) >편집보도자유위, 회보편집위원선출 채광국(위원장) 김해도(한국 논설위원) 방태철(K.T 편집국장) 신찬균(연합통신 문화부장) 안병훈(조선 정치부장)
- 04.06** 제25회 신문의 날 기념식 표어<시대를 이끄는 신문> 선언문 채택.
- 05.30** 보도용어집(외래어표기) 제3집 간행, 세계인명 970 세계지명 402 일반용어 264 약어 31로 총1,667개 단어 수록.

- 06.05** 편집인협회보 축쇄판발행(관훈클럽 신영기금지원으로 창간호부터 150호까지 국배판).
- 09.03** '언론기본법과 신문'을 주제로 제17회 매스컴 세미나(뉴설악호텔) 전국 신문·통신 편집국장과 방송국 보도국장·언론인·관계단체 인사와 문공부 관계관 등 50여명 참가.
발표자 :
· 언론기본법-그 입법정신면에서의 소견=이수정(청와대 정부비서관)
· 언론기본법상의 새로운 제도=박용상(서울고법 판사·법박)
· 기본법과 언론의 문제점=유재천(서강대 교수)
- 10.30** 프레스센터 신축관계로 편협등 타언론단체들과 함께 중구 중림동441 한국경제신문사 별관으로 이전.
- 12.30** '언론기본법과 신문'을 주제로한 세미나 17집 발간.

1982

- 01.29** 제30회 정기총회를 태평로 1가 건설회관강당서 개최, 결원중인 부회장에 이우세 서울신문주필과 안덕환 대구매일 상무를, 감사에는 이광석 경남신문 논설주간을 보선.
- 03.06** 제7차 운영위원회를 개최(유성관광호텔)당면과제논의, 전국 일간신문·통신·방송의 편집 보도국장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엠바고 또는 오프 더 레코드 사항의 준수를 만장일치 결의.
- 04.06** 편협 신문협 기협 공동으로 제26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한경별관강당). <품격과 신의를 지키는 신문>이란 표어를 내건 동대회에서 선진적 언론으로서의 성숙한 면모를 확립할 것을 다짐하는 선언문 채택. 기념대회를 마치고 편협은 4월 7일 창립25주년을 맞아 3부요인과 내외인사 700여명을 초청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축연, 동석상에서 우리나라 언론계와 협회 발전에 공이 큰 인사와 단체에 감사패 증정.

- 감사패 : 이광균 문공부장관, 성곡언론문화재단, 서울언론재단,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 기념품 : 이관구, 최석채(고문)
- 05.07** '사건기사보도의 문제점' 주제로 사회부장 연구토론회 개최.
- 06.19** 편협주최 제18회 매스컴 세미나(경주), '언론의 시대적기능' 을 주제로 전국 신문·통신·방송 편집책임자 참가.
- 07.09** 신문회관서 보도용어통일심의위원회를 열고
 - ① 보도용어집 종합판의 연내출판.
 - ② 사정용어순수.
 - ③ 외래어뿐 아니라 일반보도용어도 아울러 심의키로 결의.
- 07.14** 코리아나호텔서 '정부의 경제조치와 보도' 라는 제목으로 경제부장토론회, 김준성 부총리와 강경식 재무장관을 초청하여 6.28과 7.3 경제조치의 배경설명 청취.
- 09.08** 정읍 내장산호텔서 지방신문 편집간부 연구회 개최, '지역신문의 역할' 을 주제로 지역신문의 활로를 논의.
- 09.16** 서울 가든호텔서 '외신보도의 문제점' 을 주제로 외신부장 연구토론회 개최.
- 10.28** 편협주최로 서울 가든호텔에서 신문 통신 편집부장 연구토론회 주제 '신문 편집의 새 경향과 개선방안'.
- 12.29** 매스컴 세미나 주제 '언론의 시대적 기능' '지역신문의 역할' 등의 논의내용을 담은 매스컴세미나 18집 발간.

1983

- 01.28** 체육회관강당서 제31회 정기총회, 이우세 서울신문주필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 부회장에 송용식 연합통신 편집국장, 심상기 중앙일보 편집국장, 안덕환 대구매일상무, 감사 조순환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광석 경남신문 논설주간. 회칙 일부 개정하여 부회장 2명을 3명으로 하고 국제위원회 설치.

- 02.03** 편협운영위원회, 김친수 사무국장의 임명을 동의, 65년 4월부터 사무국장직에 있던 박홍서 동일자로 정년퇴임, 편협 보도자유위원회, 편집인회보 편집 위원을 선출.
- 보도자유위원장 : 조병철(조선 편집부국장)
 - 회보 편집위원 : 김광희(동아 편집부국장) 금창태(중앙 편집부국장) 이형균(경향 논설위원) 조장호(매경 논설위원)
- 02.17** 회장단 및 각상임위원 연석회의에서 총회 위촉으로 회칙을 개정. 모든 일간신문 통신방송의 편집·보도국장을 운영위원으로 (위원수 17인 이내를 24인 이내로) 선정.
- 고문 : 유건호 최석채 홍유선 홍종인
 - 회장 : 이우세(서울신문이사대우 주필)
 - 부회장 : 송용식(연합통신 상무이사) 심상기(중앙일보 이사 편집국장) 안덕환(대구매일 상무이사)
 - 운영위원장: 조두흠(한국일보 편집국장)
 - 보도자유위원장 : 조병철(조선일보 편집부국장)
 - 심사위원장 : 손광식(경향신문 편집부국장)
 - 국제위원장 : 정용석(동아일보 논설위원)
- 03.05** 유성서 편협회장단 운영위원 각 상임위원장 참석간담회.
- 04.06** <언론의 국제화>를 표어로 내건 제27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신문협 편협 기협 공동으로), 오후 6시부터 세종문화회관서 자축연.
- 04.18** 편협운영위는 그간 언론연구원과 일본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온 한일편집간부회의를 금년부터 편협이 주관기로 함.
- 04.29** 편협은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문화재 보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문화부장 토론회 개최.
- 05.19** ① '시급하게 순화해야 할 신문용어들'.
 ② '경제지 교열실무의 애로점과 그 효율화방안'을 주제로 교정부장토론회.

- 05.27 편협 주최 제19회 매스컴 세미나, 부산서 개최. 주제 '국제화시대-한국언론의 새 좌표' 전국 일간신문 통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등 30여명이 참가하여 사대언론과 선정성을 쟁점으로 논의.
- 07.20 서울 올림픽아 호텔에서 체육부장연구토론회를 개최하고.
- ① 프로 아마추어보도의 자세.
- ②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제문제에 대해 토론.
- 10.14 편협주최 사진부장토론회 개최(올림픽아호텔), '취재질서의 확립과 취재원 문제'를 주제로 논의.
- 10.24 호텔신라에서 '신문편집상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제21회 한일편집간부세미나 개최. 주제논문은 유시현 대구매일편집부장과 池上浩司 니혼게이사이 정리부장 발표.
- 11.10 롯데호텔에서 '오늘의 인도와 한국'이란 주제로 주한 아룬다티고스 인도대사를 초청연사로 간담회.
- 11.18 편협이 주최한 '신문제작상의 통신의 역할'이란 주제의 지방신문 편집간부 연구회가 광주 신양파크호텔서 개최. 10개 지방지편집국장과 논설위원이 참가.
- 12.09 유성 관광호텔에서 '한국언론의 좌표-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전국 신문·방송 편집·보도국장 토론회 개최, 언론 편집간부들과 행정부의 문공부장관(이진희)이 참가한 토론회에서 언론행정등 여러 문제점을 논의.
- 12.15 신문편집인협회는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주한외국특파원 송년 연회'를 가짐.
- 12.28 편집인협회와 기자협회는 버마 아웅산묘소 암살폭발사건으로 순직한 고 이중현기자 유족과 부상언론인 11명에게 그간 양단체가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 한 성금 3백 54만3천5백원을 전달.

1984

- 01.23 제6차 운영위는 83년 5월이후 심상기 부회장이 겸임해온 운영위원장에 장명석 경

향신문 편집국장을 선출.

- 01.30** 편협 제32회 정기총회, 한국경제신문 별관에서 개최. 계속사업 외에
- ① 횡서체 전환을 위해 편집연구.
 - ② 신문용어 순화연구 등을 추가.
- 02.24** 서울 올림픽아호텔서 '학원사태와 보도'란 주제로 사회부장토론회 개최. 학원사태, 복학생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교수와 행정당국인 문교부·문공부 관계관을 초청 의견교환.
- 03.23** 전국 신문 방송 편집·보도국장이 참가하는 제3회 토론회를 제주 그랜드호텔서 개최, 회장단(회장 이우세 부회장 송용식 심상기 안덕환)이 참석한 토론회서는 언론의 기능을 중점 논의하고 현대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 03.31** 84년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① 편집·보도국 제도 개선 연구위.
 - ② 신문 횡서체 편집 연구위.
 - ③ 신문용어 연구위를 발족.
- 04.06** 제28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를 한경 별관강당서 개최(신문협 편협 기협 공동), 표어 <현대화를 다지는 언론>선언문채택.
- 04.23** 신문편집인협회는 25일까지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제28회 신문의 날 표어인 '현대화를 다지는 언론'을 주제로 제2회 전국신문방송 통신사 편집·보도국장 토론회를 개최.
- 04.27** 전국 언론사 정치부장 토론회개최, '선거보도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계도기능의 한계 등 논의.
- 05.22**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보도용어 심의소위는 제90차 회의를 열고 페르시아만 표기 문제를 심의한 끝에 주요 기사에서 처음 나오는 페르시아만 지명에 한해 '아랍만'을 괄호속에 병기하기로 결정.
- 05.25** 전국의 20개 신문사 주필·주간과 방송사 해설주간등 23명이 참가한 토론회 개최. '신문논설의 기능' 주제로 선거·학원사태등 논의.

- 05.28 외무부초청으로 내한한 쿠웨이트 신문협회장 요셉 S·알얀 쿠웨이트타임스 발행인이 본협회 이우세 회장을 방문.
- 05.29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하오 2시 신문회관에서 편집국 제도개선 연구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손광식 경향신문 편집국장대리를 선출하고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
- 기구문제 = 책임위원 김영일(연합 편집부국장) 위원 손주환(중앙 편집국장대리) 조병필(KT·편집국차장) 이청수(KBS보도본부 부본부장) 정현채(광주 편집부국장)
 - 전문기자문제 = 책임위원 오도광(일간스포츠 편집부국장) 위원 유홍락(서울편집국장) 조병철(조선편집부국장) 송충섭(한경 편집부국장) 강성구(MBC편집담당부국장)
 - 정년문제 = 책임위원 조장호(매경 편집부국장) 위원 이대훈(동아 편집부국장) 박승평(한국 편집부국장) 광효석(KH 편집부국장) 이창우(부산 편집부국장)
- 06.29 서울 올림픽아호텔에서 제2회 외신부장토론회. 주제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의 외신보도' 의식의 선진화 국익문제등 논의.
- 07.06 '지역사회발전과 신문의 역할' 이란 주제로 편협주최의 제3회 지방 편집간부토론회, 설악파크호텔서 개최.
- 07.25 서울 코리어나호텔서 '신문제작의 전산화 어디까지 왔나' 주제로 편집부장 토론회.
- 09.24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보도용어 심의소위원회(위원 박용규 서강화 이정세 이민우)는 각 언론사 및 유관기관에 보도용어순화에 관한 공한을 보내 '외국의 관청·관직명을 우리나라의 해당명칭으로 적을 것' 과 '인권·인격에 차별을 두는 용어를 쓰지 말 것' 등 3개항의 시행을 촉구.
- 10.22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일본신문협회 공동으로 도쿄프레스센터에서 한일편집간부 세미나 개최, 주제는 '사회면제작의 새 방향'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측>
최종철(동아일보 사회부장) 외 15명
①주제보고자=금창태(중앙일보부국장겸 사회부장)

〈일본측〉

樋口正紀(산케이신문 동경본사 사회부장) 외 27명

②주제보고자=矢後勝洋(요미우리신문사 사회부 주임)

- 10.23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유럽복지 사회와 그 문제점'이란 주제로 오슬로대학(노르웨이)의 프란시스코 크젤버그박사 초청 간담회.
- 11.09 '언론과 국가발전'이란 주제로 제20회 매스컴세미나 대구서 개최, 22개 일간신문통신사의 편집국장과 2개 방송사의 보도국장·보도본부장·문공부 관계관 등이 참가.
- 12.17 세종문화회관 A홀에서 주한외국 신문 통신 방송특파원들을 위한 송년연회.
- 12.21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노태우 88올림픽조직위원장을 초청하여 체육부장토론회, 스포츠 막후외교 등에 대해 토의.
- 12.31 전 심사위원장 부원혁 별세(65세).

1985

- 01.31 제33회 정기총회, 한국경제신문 별판 강당서 열고 권오기 동아일보주필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
- 부회장 심상기 중앙일보상무(유임) 조두흠 한국일보상무(신임) 안덕환 대구매일상무
 - 감사 호영진 한국경제 주필(신임) 이치백 전북일보 주필(신임)
- 02.27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보도자유위원회 심사위원회 국제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구성
- 보도자유위원장 인보길(조선 편집부국장)
 - 심사위원장 조동표(일간스포츠 논설위원)
 - 국제위원장 구기석(연합 국제국장)
- 03.29 '뉴미디어시대의 조사부의 역할' 주제로 편협주최 첫 조사부장 토론회.
- ▷언론관계법을 연구하고 편협의 의견을 집약하여 통일된 의사를 천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언론관계법연구위원회를 구성, 위원장 조두흠 부회장, 위원 황석윤(변호사) 유재천(교수) 인보길(보도자유위원장) 이억순(중앙일보 논설위원) 정경희(한국일보)

- 04.02** 전 운영위원장 김경환 별세(58세).
- 04.09** 제29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새로 개관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 (신문협 편집 기협 공동).
표어<독자의 사랑받는 신문> 선언문 채택.
- 05.01** 편협을 비롯한 23개 언론단체,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로 이전.
- 05.20** 편협은 운영위서 새 위원장에 이한수 서울신문 편집국장을 선출.
- 05.25** 전 보도자유위원 김문용 별세(69세).
- 05.30** 편협심사위원회위원장에 조동표(일간스포츠 논설위원) 선출.
- 05.31** 편협 주최 전국신문 통신 방송 문화부장 토론회(서울 올림픽아호텔).
주제 : '문화면 제작의 제문제'
- 06.14** 전국 신문 통신 방송사의 편집 · 보도국장 토론회,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언론계출신 정치인 김용태의원(민정 · 국회재경위원장) 조세형의원(11대)을 연사로 초청, 취재보도문제 논의.
- 07.05** '지방기사취재와 보도' 주제로 전국지방부장 회의를 유성서 개최.
▷전 보도자유위원, 서울대신문대학원장 김규환 별세(56세).
- 08.08** 전 운영위원 이한용 별세(68세).
- 08.13** 전 심사위원 우승규 별세(83세).
- 08.29** 전국 신문 방송 통신 과학부장 토론회, 서울 올림픽아호텔서 '과학기사 보도의 제문제'를 주제로 개최.
- 09.16**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 경기장 시설 등 취재차 내한한 일본스포츠신문 편집국장단(단장 遠藤德貞 호치신문 편집국장), 권오기 편협회장 방문.
- 10.16** 편협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회변화와 사회면보도' 주제로 한 · 일 양국 사회부장들이 참가한 제23회 한일 편집간부세미나 개최.

- 10.25 '언론과 경제보도' 를 주제로 전국신문 방송 통신사 편집국장 · 보도국장세미나 개최, 언론계출신 경제인 김인호(전주제지 사장) 김용원(대우전자 사장)을 연사로 초청.
- 11.22 편협주최 '신문논설의 기능과 문제점' 주제의 제2회 주필 논설주간 토론회(제주). 최석채 고문 발기로 열린 토론회에서 언론의 권위 등을 논의.
- 11.29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2월 1일까지 수원 브라운호텔에서 '지방신문의 경영과 문제점' 이란 주제로 지방신문 편집간부 연구토론회를 개최.
- 12.11 서울 롯데호텔서 '한 · 중앙국 관계의 전망' 을 주제로 薛敏麒 주한자유중국대사를 연사로 초청 간담회.
- 12.13 편협주최로 시내 올림픽아호텔서 전국 교정부장 토론회 개최, '보도용어의 통일' 이란 주제로 표기와 맞춤법등 어문정책의 조속 확정 촉구.

1986

- 01.31 제34차 정기총회 개최. 신문제작에 있어 문교부가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 에 따르기로 결의.
86년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주필 · 논설주간토론회, 편집보도국장 토론회, 매스컴세미나, 지방편집간부연구회, 한일편집간부세미나, 해외저명인사초청간담회, 신문제작연구토론회(5개부장단), 보도용어통일작업, 신문용어순화작업, 회보발행 등 출판사업, 편협 30년사 편찬.
- 02.17 보도자유위원회는 지난 13일 민주협사무실 수색영장집행과정에서 경찰의 취재 방해와 기자폭행사건을 논의하고 행위자는 물론 현장 지휘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항의문을 내무부장관에게 보내기로 결의.
- 03.07 운영위원회에서 86년도 예산안 세입 8,589만원 세출 1억1,667만원을 심의 확정.
- 04.07 제30회 신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신문협 편협 기협 공동).
· 표어<화합을 다지는 신문>, 선언문채택.

- 05.23** 제주 서귀포에서 ‘언론과 학원’이란 주제로 토론회, 일간신문 통신사 방송사 편집·보도국장 참가, 박봉식 서울대총장과 문병집 중앙대 총장을 연사로 초청 학원 사태와 문교행정에 관해 의견교환.
- 05.30** 시내 올림픽아호텔에서 전국 일간신문 통신 방송사 문화부장토론회.
주제 : ‘문화면 제작의 문제’
- 06.12** 전 운영위원, 조선일보주필, 선우회 별세(64세).
- 06.27** ‘86아시안게임의 사진취재와 보도’ 주제의 전국사진부장토론회.
서울 올림픽아호텔서 열린 토론회서는 ‘86·88은 언론올림픽이기도 하다’는 견지에서 진지한 토론.
- 07.30**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주한 미카나기(御巫清尙) 일본국대사를 초청.
‘한일간의 현안문제’란 주제로 간담회.
- 08.04** 운영위원회에서 이형균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운영위원장에 선출.
- 09.12** ‘지방행정과 언론’을 주제로 전국 16개 신문사 편집간부 연구토론회 편집주최로 개최. 홍보적 사정비판적 기능 강조.
- 10.10** 유성에서 ‘언론과 민주화’란 주제로 제22회 매스컴세미나 개최. 최석채고문(대구 매일명예회장)과 강원룡목사(아카데미하우스 이사장)를 연사로 초청.
‘한국의 민주화는 언론의 계도적기능에 크게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
- 10.17** ‘86 아시안게임 보도의 총평’이란 주제의 체육부장 토론회를 편협주최로 서울 올림픽아호텔서 개최.
- 10.30** 일본 도쿄프레스센터에서 일본신문협회와 공동으로 ‘문화면 보도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제24회 한일 편집간부세미나 개최, 양국의 문화부장 35명 참가.
- 11.20** 서울코리아호텔에서 주한 필리핀대사 토마스 파딜리아씨를 초청, ‘필리핀 정부의 전망과 경제현황’이란 주제로 간담회 개최(국제위원회 주관).
- 11.28** ‘지방뉴스 취재보도의 문제’란 주제의 제2 사회부장(지방부장)토론회(올림픽아호텔), ‘뉴스취재 경쟁이 없으니 매너리즘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
- 12.05** 부산에서 ‘한국언론의 논설의 역할’이란 주제로 주필·논설(해설) 주간 토론회 개

최, 권오기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이만갑 교수(서울대)의 주제강연, 이용희 문공부 장관의 연설도 있었음.

- 12.10** 일본의 외국프레스센터(FPC)가 요청한 87년도(제3회) 일본연수파견 한국기자 8명을 선정 일본측에 통고.

편협이 추천한 일본연수 파견기자 명단

신종수(중앙 사회부차장), 유세진(서울 외신부기자), 박창호(부산 체육부기자), 김재급(전북 사회부차장대우), 권기팔(일간스포츠 체육2부기자) 김광원(동아 외신부기자), 이용(경향 문화부기자), 윤천식(한국 편집부장대우)

1987

- 01.31** 제35차 정기총회, 권오기 회장 등 전 임원진 유임. 언론정책에 관한 문제는 회장단에 위임결의.

87년도 중요사업은

①주필 · 논설(해설)주간토론회 ②편집보도국장토론회 ③매스컴세미나 ④지방지 편집간부연구회 ⑤한일 편집간부세미나 ⑥해외저명인사 초청 간담회 ⑦한국신문 100년 인물사전 편찬 ⑧편협 30년사 편찬 ⑨편협회보 8면으로 증면 발행.

- 02.28** 전국 23개 신문 · 통신사 편집국장대상으로 한 <주재기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조사항목 : 주재기자의 필요성여부, 주재기자 인원수와 상주위치, 중앙지의 지방주재기자수와 상주지(출입처), 지방지의 서울주재기자수와 상주지(출입처), 주재기자 신분과 대우

- 03.12** 보도자유 · 국제 · 심사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선출.

· 보도 위원장 금창태(중앙일보편집국장대리).
· 국제위원장 현소환(연합통신국제국장).
· 심사위원장 조동표(일간스포츠 논설위원)

- 03.27** 서울 올림픽아호텔에서 「주간지의 윤리와 품격」 주제로 신문·통신사 주간·출판부장토론회 개최 <대중매체의 제작방향> <성윤리기준의 문제성> <청소년선도와 매체의 유독성여부>로 윤리위원회측과 공방전개.
- 04.06** 편협·신문협·기협 공동으로 제31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표어<바른신문 바른 사회>.
- 04.24** 언론기본법 개정등 언론 현안문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협의기구로 <언론활성화협의회>구성.
 · 편집인협회:금창대(중앙일보), 인보길(조선일보)
 · 신문협회:최재운(연합통신), 이규진(중앙일보)
 · 방송협회:이은명(MBC), 배학철(KBS)
- 05.02** 언론활성화협의회 첫 회합 개최. 회장 최재욱(경향신문 사장), 간사 김진찬(신문협회 사무국장).
- 05.09** ▷광주시 신양파크호텔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편집인이란 경영자나 기자와는 다른 전문인 입장에 서서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바탕 조성에 힘을 기울이기로 <언론활성화 협의회>의 공식건해 집약하고 「오늘보다 더 자유로운 언론」의 추구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6월 5일 성문화하여 제출.
 ▷87년도 전국 신문·신문·통신·방송사 편집·보도국장토론회를 전기 장소에서 이규현(전캐나다 대사)을 초청하여 <국제외교시각에서 본 언론> 주제로 개최
- 05.15** 긴급 보도자유위원회를 열고 서울 북아현동 감리교회 농성 성직자 연행과정에서 발생한 동아일보 하준우기자 폭행사건을 <언론자유 중대한 침해>로 간주 정호용 내무장관에게 항의 공한 보내 관련자와 지휘책임자를 의법 엄중처벌 할 것을 촉구.
- 06.19** 서울 올림픽아 호텔에서 <오늘의 신문편집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전국 신문·통신사 편집부장토론회를 가짐. 주제 발표자 최종수(중앙대 교수).
- 06.29** 언론활성화협의회는 제6차 전체회의를 갖고 문화공보부에 <언론기본법은 폐지하고 행정상 필요한 부분은 새법으로 정하되, 프레스카드는 폐지하고 주재기자, 증면문제는 언론기관 자율에 맡기며 자유로운 신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건의.

- 08.26 편협 언론관계법례연구소위원회(위원장 조두흠)는 국회에 제출된 각 정당의 언론 관계 법안을 검토한 끝에 언론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우려가 있는 8개항을 가려내서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 모음.
- 09.29 편협은 충북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제6회 지방신문 편집간부 토론회를 10개 지방신문 편집부국장들이 모여 <지역신문의 제작 방향> 주제로 개최.
주제발표자 : 임해순(충청일보 편집국장)
- 10.19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정면 제작의 어려움>이란 주제로 제25회 한일편집간부 세미나. 한일 양국의 문화부장이 참가하여 여성독자와 신문제작과의 관계, 신문소설과 독자와의 관계, 여성란 독자의 대상문제, 문화부기자의 전문화문제 등 토의
주제발표자 : 白石省吾(요미우리신문 문화부차장)<문화면 편집의 문제점>
전상수(부산일보 편집부국장) <가정면제작의 문제점>.
- 10.29 국회문공위, 언론관계법 심사소위는 일간신문과 통신등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언론기관은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결정.
- 11.27 제23회 매스컴세미나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새언론법과 언론>이란 주제로 전국 신문·통신·방송사의 편집·보도국장이 참석하여 개최.
주제발표 : 서강대 유재천교수.
- 11.28 정부는 국회 의원제안 입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과 <방송법>등 새 언론법을 공포.
- 12.08 편협 창립 30주년 및 <30년사> 출판기념회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

1988

- 01.28 제36회 정기총회.
권오기회장은 <언론환경을 바꿔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바뀔 언론의 모습을 구상할 때>가 왔다고 역설. 승인된 예산액 1억9천8백만원.

- 02.25** 편협은 회원을 대상으로 새로 출범하는 제6공화국의 언론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펼쳐질 것이며 이에 따라 언론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미리 그려보기 위한 3개항의 여론조사를 실시.
- 03.18** 춘천 세종관광호텔에서 <정보화시대, 언론사 조사부의 기능>이란 주제로 전국 신문·통신·방송사 조사부장 세미나 개최.
 사례발표 : 김진홍(KBS 전산실 차장).
 사례발표 : 김진홍(KBS 전산실 차장).
- 04.06** 제32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표어<자유경쟁시대의 신문>으로 제정.
- 04.08** 편협은 한국언론연구원과 공동으로 인천 송도호텔에서 <자유·경쟁언론의 과제>를 주제로 대토론회개최.
 · 제1주제 : 해방40년의 언론사 회고(김진현·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
 · 제2주제 : 개방경쟁시대의 전략(손광식·경향신문주필)
 · 제3주제 : 전문화시대의 대응(인보길·조선일보 편집국장대우)
 · 제4주제 : 언론의 활성화와 책임의 관계(최서영·KH 전무이사)
 · 제5주제:TV뉴스의 공익성(배학철·KBS 보도본부장)
 · 제6주제:국제화시대의 통신서비스(현소환·연합통신 상무이사)
- 05.27** 전북 내장산관광호텔에서(88서울올림픽행사와 보도용어통일)을 주제로 전국 신문·통신·방송사 교정-교열부장 토론회 개최.
 ▷편협은 외래어표기통일사업의 일환으로 88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선수와 임원들의 이름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정리 <표기통일집>을 인쇄, 배포 결정.
- 06.10** 제주 워싱턴호텔에서 <자유경쟁시대의 언론>이란 주제로 편집·보도국장토론회 개최.
 신문사 등록요건 완화에서 비롯되는 신문기업의 자유경쟁양상 변화와 그 부작용 형태 및 대처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88올림픽을 계기로 언론의 국제화가 불가피한 한국언론의 건전한 발전도모방법을 토론.
- 07.15** 경남 창원관광호텔에서 <자유경쟁시대의 지방신문>을 주제로 제7회 지방신문 편

집간부 연구토론회 개최.

주제발표자 : 정진석(한국외국어대학 교수).

- 07.18**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조지 슐츠 미국무부장관을 초청대화 개최. 슐츠 장관은 <한국안보문제에 관해 외부위협에 한미 양국은 공동 대처한다>고 밝힘.
- 07.22** 회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언론인의 남북교류문제>와 <편집권문제> 등을 보도자유위원회와 국제위원회에 각각 위임.
- 07.29** 보도자유위원회는 여러 회원사에서 제기되고 있는 편집권 문제 등에 대해.
· 회원들의 의견수렴 방법.
· 수렴된 의견 공동발표등에 대한 토론회 개최.
- 08.06** 편협보도자유위원회는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 테러사건에 대한 항의성명서 발표.
- 08.26** 보도자유위원회는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편집권의 본질과 소재>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편집권 개념과 귀속성에 관한 소고>(발표자 · 원우현 고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서 편집권은 언론인의 권리이며 “사시·방침의 전통존중 등이 전제”여야 하는데 실천적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적시.
- 10.24** 편협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편집간부세미나 <아시아 경제권의 장래와 경제면제작>주제로 개최. 한일 양국의 신문·통신·방송사의 경제부장 참석.
주제논문 : 아시아 경제권의 장래: 김희중(경향신문 경제부장).
경제보도현황과 과제: 肥塚文博(마이니치신문 도쿄본사 경제부장).
- 11.21** 국회문공위 청문회개최. 5공치하 언론사통폐합, 해직 등 언론통제 실상 규명.
- 11.25** 제24회 매스컴 세미나 전주 코아호텔에서 <통일정책과 보도> 주제로 신문·통신·방송사의 편집·보도국장이 참가하여 이흥구통일원장관을 연사로 초청, 정부의 통일 정책을 묻고 언론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해 상호 의견교환.

1989

- 01.31** 제37회 정기총회 개최. 회장 조두흠(한국일보주필)을 선출하고 임원진도 개편.
· 부회장 : 남시욱(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 안병훈(조선일보 상무), 안형순(강원일보 상무).
· 감사 : 이길영(KBS보도본부 부분부장), 전진한(광주일보 편집국장)
- 02.17** 운영위원회 개최, 위원장에 이돈형 중앙일보 편집국장 선출.
- 02.28** 편협, 상임 위원장 새로 구성 완료.
· 심사위원장:이재근(서울신문 논설위원)
· 보도자유위원장:강신구(경향신문 편집부국장)
· 국제위원장:현소환(연합통신 상무이사)
- 03.10** 편협은 국제신문 난입 폭행사건과 평화민주당(평민당)과 조선일보 사이의 분규 등 일련의 사건이 언론자유에 위협을 주는 사태로 보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 04.06** 제33회<신문의 날>기념대회. 신문주간표어<자율과 책임과 화합>.
- 05.26** 제25회 마스크 세미나를 제주위싱턴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전망-한국경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28일까지 각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이 참석하여 개최.
주제논문 : 한국경제의 전망과 보도(조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09.20** 편협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케일 미부통령초청 토론회. 현소환 국제위원장(연합통신상무)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케일 미부통령은 “대한안보공약은 확고부동하고 주한 미군은 한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수 있는 한 주둔할 것”이라 밝힘.
- 09.26** 한국신문협회(회장 서기원)는 제13회(1989년도) 한국신문상 수상자로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보도용어통일위원회(위원장 박갑천)를 외래어표기통일에 기여한 공으로 선정 시상.
- 10.13** 편협은 충남 도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신문>을 주제로 제8회 지방편집간부연구회 개최.

주제논문 발표자는 전진한 광주일보 편집부국장.

- 10.23** 편협은 23~29일 <경제문제와 보도>를 주제로 제27회 한·일 편집간부 세미나를 서울에서 양국 언론사 편집국장이 모여 개최.
- 주제 : <한일 경제관계의 현재와 미래>최철주(중앙일보 경제부장).
<동아시아의 장래와 한일경제>長谷川隆(교토통신 경제부장).
- 10.31** 편협 운영위원회 결의로 서재필박사 동상건립기금을 12월 10일 기한으로 모금키로 함.
- 11.04** 89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 개최. 위원장에 성병욱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선출.
- 12.19** 편협(회장 조두흠)은 프레스센터에서 “재소언론인의 역할과 한·소 협력관계”를 의제로 방한중인 소련의 한국계 교포 중진 언론인 10명을 초청 간담회 개최.

1990

- 01.31** 제38회 정기총회 개최. 90년도 예산안과 사업 승인.
- 02.27** 편협 보도자유위원회는 <제4 땅굴 발견>보도와 관련 군수사기관의 세계일보 편집간부 심야연행 조사는 언론의 자유침해라는 요지 성명 발표.
- 04.07** 제34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개최, 신문 주간 표어 <책임있는 신문, 신뢰받는 신문>
▷송제 서재필박사 동상 제막식을 서울 서대문 소재 현저공원에서 거행.
- 동상건립금출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신문협회 1억2천4백만원
 - 방송협회 5천만원
 - 편협 2백 73만 5천원
 - 기협 1백만원
 - 언론인회 2백 35만 5천원
 - 조선히텔 서재필 룸 75만 1천원
- 04.20** 편협, 제주 워싱턴호텔에서 제26회 마스크 세미나를 <전환기의 한국언론>과 <취재시

시스템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전국 신문·통신·방송사 편집·보도국장이 모여 개최.

주제논문 : 전환기의 한국언론.위상과 과제: 오택섭(고려대 교수).

취재시스템의 몇가지 문제 : 김창열(한국일보 상임고문).

- 05.04 편집 운영위원회는 KBS사태와 언론 제작 거부 확산 움직임에 대해 논의<신문·통신·방송의 제작거부는 현재의 난국에 새로운 불안 위기 요인을 더 하는 사례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 반대 입장임을 밝히는 성명 발표.
- 06.07 편집 보도용어 통일심의 소위원회는 제14회 월드컵축구 참가선수 이름의 한글표기를 통일키로 하고 <표기 자료집>을 발간 회원사에 배포.
- 09.01 편집은 남북언론인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현소환 연합통신 상무를 선임.
- 09.30 편집은 제11회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 참가할 선수명의 표기통일 사업을 마무리 짓고 <표기 자료집> 제1집을 배포.
- 10.05 충북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신문>을 주제로 제9회 지방편집간부 연구회 개최.
주제발표자 : 이상훈 중부매일사장은 <지방지 협의회>구성을 제의하며 중앙 지향 타성을 적극 탈피하고 해외특파원문제 운영을 제의.
- 10.29 편집은 29~11.3일 까지 6일간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신문협회와 공동으로<과학기술과 매스컴 역할> 주제로 한일양국의 언론사 과학 부장 세미나 개최.<과학기자 교류와 아시아 컴퓨터센터 설립>논의.

1991

- 01.18 제39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 신임회장에 안병훈 조선일보 편집인 겸 상무를 선출하고 부회장에는 남시욱(동아일보 상무), 장두성(중앙일보 논설주간), 현소환(연합통신 상무) 박성범(KBS 보도본부장) 최승호(광주일보 편집인 겸 전무)등 5명을 선출.

감사 백인호(매일경제 이사) 임해순(충청일보 편집인 겸 전무) 선임.

초대회장 이관구, 6대회장 이우세, 8대회장 조두흠 등 고문 추대.

- 02.10** 회장단은 편협활성화 제1단계 사업으로 회원배가 운동 전개.
- 03.01** 편협은 수서사건의 대언론 로비문제와 관련 <불미스러운 사태를 두고 우리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자성하고 자정하는 뜻깊은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사과 성명.
- 03.14** ▷편협은 뉴스메이커와 정례적인 조찬대화를 갖고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책임언론의 구현과 새 전통의 정착을 위해 대화내용에 제한 없이 질의응답케 하는 조찬 간담회 규칙 제정.
▷소련 타스통신 레프 스피리드노프사장 초청 편협간담회 신라호텔에서 개최. 타스통신사장은 <미국이 힘의 정책을 계속할 때는 냉전이 복귀되고 남북한의 통일도 멀어질 것>이라고 밝힘.
- 03.30** 편협은 소련 기자 동맹으로부터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상호대표단을 파견, 학술토론등의 정기 교류를 수락한다는 답신접수.
- 04.04** 제35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신문주간 표어 <자정으로 신뢰회복 자율로 책임완수>.
- 04.11** 편협은 FAX 23회선 동시통보장치를 설치, 각 신문·통신·방송사에 화상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 가동.
- 04.12** 금요조찬대화 첫모임 오전 7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이종구 국방장관을 초청 개최 <걸프전의 안보적 의미>를 주제로 진행된 대화록을 회원 40개사에 즉시 서비스.
- 04.15** 편협고문 원로 언론인 고 최석채선생 영결식 서울 은평구 응암동 2의 21 자택에서 유가족, 언론계, 학계, 정계 친지 200여명 참석 첫 한국신문편집인협회장으로 거행.
- 05.12** 편협 안병훈회장은 일본신문협회장에게 일본 운선악화산 폭발, 일본 언론인 희생에도 조건.
- 05.14** 편협 보도용어 심의위원회는 새 외래어 표기 통일을 위한 언론·정부 공동 기구 운영을 촉구하면서 반사회적 용어순화를 적극 추진하며 복구·동구용어 표기법도 제정키로 함.

- 05.31** 편협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6월 2일까지 전국 신문·통신·방송사의 편집·보도국장 제27회 마스크 세미나를 개최.
원우현(고려대)교수의 <취재시스템의 개혁> 주돈식 조선일보 편집국장의 <조선일보 편집국개편의 이론과 실제>주제 발표.
- 07.30** 편협은 정부·언론 공동 심의기구의 발족 계기로<외래어 표기의 표준 가이드 북>을 발간하기 위한 일반 용어는 물론 외국의 지명 인명·전문용어 등 3만 여개의 외래어 편찬 작업에 착수.
- 08.29** 편협회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언론 윤리의 제고와 언론인 이미지 개선 문제를 집중 논의할 언론윤리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의결.
- 09.10**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발족 첫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92학년도부터 교과서 적용과 언론사에 준수요청공한 발송하기로 함.
초대 위원장 안병희 국립국어연구원장(서울대 교수) 선임.
- 10.28** 편협은 11월 3일까지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신문협회와 공동<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마스크의 역할>주제로 제 29회 한·일 편집 간부 세미나 개최.
주제발표자 : 한국측 이광영(한국일보 편집위원), 일본측 丹羽卓二(니혼게이사이 신문 과학기술부장).
- 11.05** 편협은 보사부 출입기자단 촌지수수와 관련 <기자단 금품수수는 유감이며 잘못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성명발표.
- 11.15** 편협은 경주코오롱호텔에서 <지방지 제작의 앞날>을 주제로 제10회 지방편집간부 세미나 개최. 동세미나에 참석한 강원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등 5개 지방지 해외 공동 취재망 구축기로 합의.
- 12.10**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위원장 안병희) 제12차 회의.

1992

- 01.23** 제40회 대의원총회 개최. 91년도 결산보고와 92년도 4억 2천 5만 9천여원 규모의

예산안 가결.

- 03.11**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는 88개국의 원수·총리 이름의 한글 표기안을 확정 발표.
- 04.03** 편협은 4월 첫금요일(7일)부터 셋째 금요일(17일)까지 민자당, 민주당, 국민당 3당 대표최고위원을 잇달아 초청 3주 연석 금요조찬대화 개최.
- ▷4.3: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
〈21세기를 맞는 한국의 정치지도자론〉
- ▷4.10: 김대중 민주당 공동대표 최고위원
〈우리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4.17: 정주영국민당 대표최고위원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한국정치의 방향〉
- 04.06** 제36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신문주간 표어〈사회에는 정의를 독자에게 신뢰를〉, 〈책임있는 보도 사랑받는 신문〉, 〈신문의 특성화 기자의 전문화〉
- 04.11** 편협이 추진한 몽향 최석채선생 추모비 제막식과 추모문집 〈지성감민(至誠感民)〉 〈낙동강오리알〉 발간 기념회 개최.
- 06.05** 편협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전국 35개 신문·방송·통신사의 편집·보도국장 및 편협 임원 등 50여명 참가 〈대통령선거와 언론제작〉을 주제로 제28회 매스컴 세미나를 개최.
- 주제논문: 선거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조용중(언론인).
대통령선거와 신문의 보도 - 팽원순(한양대 교수).
- 06.15**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강문규 공동대표(YMCA사무총장) 서경석 사무처장(경실련 사무총장) 유재천 언론대책위원장(서강대 교수) 편협을 방문, 안병훈회장등 회장단을 만나 6개월후에 실시될 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선거보도의 공정성 문제 등을 협의.
- 08.11** 편협은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들의 국민지지도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보도를 금지토록한 대통령선거법 제65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21조와

24조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임광규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 09.26 편협은 세계 19개국에 대한 갤럽인터내셔널에 조사의뢰했던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인기도 조사 가능정도 및 그 결과 발표에 따른 국민의식에 관한 결과회보 접수 발표.
- 09.30 한국의 신문·통신·방송사 정치부장 15명이 제30회 한일 편집간부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
〈전환기의 정치와 미디어의 역할〉 박기정 동아일보정치부장, 〈냉전후의 세계-아시아, 한·일〉 小栗敬太郎 아사히신문정치부장 등 논문 발표.
- 11.21 편협(회장 안병훈)은 이번 대통령선거가 끝난뒤 대선법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민자, 민주, 국민당 정책의장에게 법개정을 촉구하는 공한 발송.
- 11.27 편협은 강원도 낙산비치호텔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제11회 지방 편집 간부 세미나 개최.
- 12.04 편협은 동구권 5개 언어의 표기법 고시를 계기로 대전에서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교열부장 40여명 연찬을 실시.
- 12.08 편협은 〈국민당과 현대가 조선일보의 편파보도를 주장하며 조선일보 기자의 당사 출입을 막고 취재를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적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표명.

1993

- 01.15 제 41회 대의원총회 개최. 회장단 유임. 안병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언론의 질과 이미지 제고를 다짐.
- 12.19 정부·언론 외래어 공동 심의위원회는 제5차 회의 개최.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 올라있지않는 29개 일반 용어와 〈체코〉〈슬로바키아〉 등 새 국명 표기를 확정.
- 02.26 편협은 한국 사진기자회, 한국 TV카메라기자회와 공동으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장에서 <사진 취재의 권리와 윤리>란 주제로 사진부장 세미나 개최.

사진취재의 권리와 윤리성을 지키기 위해 <사진취재준칙>의 필요성을 인식 <사진 TV영상 취재 제정 위원회(가칭)> 구성키로 함.

- 04.06** 제37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개최, 신문주간 표어<기자는 自淨노력 보도는 公正 노력>.
- 06.17** 편협은 6월 16일 <권영해 국방장관 출국금지>보도와 관련, <당국이 중앙일보 사회부 정재현기자를 전격 구속한 것은 상권을 벗어난 과잉 대응>이라고 비난하고 <정기자의 즉각 석방촉구> 성명서 발표.
- 06.18** 편협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란 주제로 제29회 매스컴 세미나를 개최.
전국 신문·통신·방송사 편집·보도국장 등 50여명이 참가한 세미나에서 최정호 교수(연세대)와 김상기 교수(미남일리노이 대) 등 주제 발표.
- 06.30** 편협, 신문협회, 기자협회, 한국언론연구원, 언론학회 등 언론 유관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언론연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결정할 <언론인 연수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
- 10.15** 편협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논설 및 해설위원 39명이 참가 <한국 언론과 어피니언>을 주제로 논설·해설위원 세미나를 개최.
- 10.19** 편협과 일본신문협회는 공동주최로 제31회 한·일편집간부 세미나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국 정치부장 참석리 <전환기의 정치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
권오기 동아일보사장의 특별초청강연에 이어, 일본측 참가자는 안병훈 편협회장 안내로 청와대로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
- 10.28** 김영삼대통령은 안병훈 편협회장 등 간부 15명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
- 11.12** 편협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전국신문·방송·통신사 사회부장 세미나를 <현재의 경찰기자 취재방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이혜복(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구중(동아일보 도쿄지사장) 주제논문 발표.
- 11.18** 편협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편집 부장세미나를

〈컴퓨터시대의 편집 방향〉을 주제로 개최.

인보길(조선일보이사 편집국장)과 오택섭교수(고려대) 주제논문 발표.

- 11.29**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EC집행위원회가 공동주최로 제1회 한국·EC 언론인세미나를 11월 29일 브뤼셀의 EC본부 회의실에서 개최 2일간 일정 성공리에 폐막.

- ①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유럽에서의 EC의 위상.
- ② 한국과 EC — 동반자 관계의 진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모색.
- ③ 한국과 EC언론의 현안.

- 12.06** 보도용어통일 심의위원회는 정부관계자와 합동 회합을 갖고 EC(European Communities, 유럽공동체)의 통칭을 EU(European Union)로 적고 우리말 명칭으로는〈유럽연합〉으로 개정. 〈EC집행위원회〉는〈유럽집행위원회〉로〈EC 단일시장〉도 〈유럽단일시장〉으로 함.

- 12.09** 편협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국제부장 세미나를 개최. 〈한국언론 국제화에 부응하고 있는가〉주제로 이정길(연합통신 외국국장대우)과 黒田勝弘(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주제논문 발표.

- 12.16** 편협은 대전 유성 관광호텔에서 지방 편집간부 세미나를 〈탈 중앙 집중화와 지방 언론의 역할〉이란 주제로 개최. 김종남(광주일보 편집부국장)과 하동현(전남대 교수)이 주제논문 발표.

1994

- 01.28** ▷제 42회 대의원 정기 총회.

▷〈94년판 외래어사전〉출간:1976년 이래 외래어 통일 작업을 벌여오며 인명·지명·학술용어·일반용어 등 외래어 2만 9천 7백여개 단어를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 표기법에 따른 한글표기, 로마자 또는 한자원어, 간결한 해설을 곁들여 수록〈국판1,454페이지〉.

- 03.24** 전국 언론사 환경담당부장 세미나는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환경보도와 언

론의 역할》을 주제로 안병훈 편집회장, 남시욱 편집부회장 등 편집 관계자와 산업 연구원 에너지연구실장 김준한 박사 및 배달 환경연합 사무총장 장원 교수(대전대)등 발제자, 신문 방송 환경담당부장 등 29명이 참석 개최.

주제논문 : <그린라운드 논의 동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김준한, <환경과 언론> 장 원.

- 04.06** 제 38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 신문주간 표어 <정직하게 만든 신문 밝은 미래 약속한다>.
- 04.21**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롯데호텔에서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를 개최 일본신문협회 세노모 아키라 전문위원(妹尾彰)의 <일본 NIE 활동>에 관한 초청강연.
- 05.07** 편집은 김숙희교육부장관에게 NIE (Newspaper in Education)운동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는 공한 발송 <신문을 국 · 중 · 고교 교육교재로 활용해 줄 것>을 촉구.
- 05.26** 편집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문민시대의 안보와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제 30회 전국 신문 · 방송 · 통신사 편집 · 보도국장 세미나를 개최.
주제발표 : 김경원(사회과학연구원장), 박수길(외교안보연구원장)
- 06.12** 편집과 프레스센터 공동주최로 <환경위기와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 호텔신라에서 국제환경저널리스트 서울대회를 개최. 동 서울대회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와 한국프레스센터(이사장 이상하) 그리고 글로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UN의 5개 기관 후원으로 25개국에서 총 64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
- 10.05** 제2차 한 · EU(유럽연합)언론인 세미나가 한국신문편집인 협회와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공동주최로 호텔신라 영빈관에서 개최. 안병훈 편집회장, 남시욱 부회장, 김건진 국제위원장 등 한국 측 대표 31명과 리크빙켈 네덜란드 헤트 피난시엘레 다흐블라트지 기자등 EU측 대표 12명이 참가하여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국제 교역과 세계무역기구> <EU한국간 직접투자의 현황과 전망> <미디어의 미래- 전자와 인쇄매체>등을 주제로 토론.
- 10.26** 제32차 한 · 일편집간부세미나가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일본신문협회 공동 주최

로 일본의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

〈21세기의 한·일 관계와 보도의 역할 - 한·일국교 3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주제로 한국측 15명 일본측 26명 참가.

주제 발표자 : 한국측 최철주(중앙일보 편집부국장), 일본측 平井久志(교토통신 외신부)

- 11.24 전국신문·방송·통신사 문화부장 세미나는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케이블 TV시대의 개막과 文化수용 방안〉을 주제로 현소환(연합통신 사장)과 임상원(고려대 교수)발제로 개최.

1995

- 01.20 편협은 제43회 정기대의원대회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개최. 남시욱 동아일보상무이사를 새 회장 선출.

· 회장 남시욱(동아일보 상무이사)

· 부회장 이문희(한국일보 전무이사), 김대중(조선일보주필), 성병욱(중앙일보 논설주간), 최동호(KBS부사장), 이창우(부산일보 전무이사)

회칙개정 : · 매년 소집하던 정기총회를 2년에 한번씩 개최.

· 편협의 주요사업은 이사회 중심으로 심의 결정 운영.

- 02.08 편협은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미국 신문인 프랭클린 슈워츠(슈워츠 커뮤니케이션 사장)를 초청〈멀티미디어시대의 신문〉을 주제로 조찬간담회 개최.

- 02.15 편협회장단 회의를 개최 6개위원회 위원장 선출.

· 심사위원장 김명수(경향신문 논설위원) · 보도자유위원장 황소웅(한국일보 논설위원) · 국제위원장 문명호(동아일보 논설위원) · 보도용어통일심의위원장 정복수(스포츠서울 부국장급) · 남북교류위원장 도준호(조선일보 대기자(부국장))

· 편집위원장 이세일(서울신문 부국장)

- 03.14 제39회 신문의 날 기념 한기찬변호사의 〈신문윤리강령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세미나 개최.

- 03.20** 95년도 제3차 보도용어 통일 심의 위원회 개최. 93년도에 발족한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사정한<외래어 표기 사례>만을 따르기로 재확인하고 행정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외래어의 표기 사례>는 그 부처의 공식 견해로만 간주. 또한 동심의위는 <외래어표기 통일 사업>의 보다 효율적 운영 도모를 위해 편협에 <문의 창구>를 설치 운영.
- 03.24** 이흥구국무총리 초청 <세계화와 개혁의 관계>주제 금요조찬대화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
- 03.31** 로르스테드 주한EU대사를 초청 <김영삼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후의 한 EU관계 전망>주제의 금요 조찬 대화 개최.
- 04.06** 제39회<신문의 날>기념대회, 신문주간 표어<세계를 읽는 신문 미래를 보는 국민>.
- 04.20** 편협 제31회 매스컴 세미나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지면향상과 전문기자 제도>을 주제로 박권상(언론인)은 외국사례 중심으로, 김영희(중앙일보 상무)는 중앙일보사례를, 그리고 오택섭 고려대 교수는 전문기자 제도에 대한 학문적 측면에서의 고찰을 발표.
- 04.21** 편협은 제주서 귀포 KAL호텔에서 운영위원회 개최.
연합통신의 이문호편집국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 05.10** 편협은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이사회 개최. 신문윤리강령의 개정사업 추진 문제 협의.
- 05.14** 신문협회 최종을 회장, 기자협회 안재휘 회장, 편집인협회 남시욱 회장등 3개 언론단체장은 프레스센터에서 회동 <신문 윤리 강령및 실천요강>을 개정 96년 4월 7일 신문의 날에 공식 선포기로 합의, 개정위원회 구성.
- 05.18** 편협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세계화시대의 보도용어의 순화>를 주제로 전국 신문·통신·방송사 교열부장과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위원 합동 교열부장세미나 개최.
주제 발표 : 송 민(국립국어연구원장)의 <세련된 국어표현 확립없인 세계화는 어렵

다), 정재도(한말글 연구회장)의 <쏟아지는 새말들을 제대로 다듬어 쓰자>, 신상현(방송위원회 언어 특위간사)의 <지금 세계는 치열한 언어전쟁을 치르고 있다>.

07.10 편협은 미국 캔자스 대학교와 공동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한국 중견 언론인 <미국 미디어>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 성곡언론문화재단(이사장 한중우) 후원으로 캔자스 대학 측 톰 블랙, 폴제스, 밥 바소 교수 참석.

07.14 ▷조순 서울시장초청 편협주최 제32회 금요조찬대화.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는 제8차 회의를 열고, 표기문제 정착을 위해 교과서는 96년부터 따르기로 함.

07.21 공노명외무장관은 편협주최 제33회 금요조찬대화에서<한-미 사이에 대북 정책상 시각차가 없고>, <한-미 양국은 북의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에 공동 대응한다>고 언명.

09.15 김윤환 민자당대표위원은 편협주최 제34회 금요조찬대화에서 <한국정치의 나아가야 할 방향 - 민자당역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 <민자당의 차기 대선후보는 내년(96년)총선 전후에 밝혀 질 것이라>언명.

10.01 편협은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10월 1일 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3회 한-EU 언론인 세미나를 개최.
<냉전의 유산물, 한반도의 장래> <한국의 실정과 당면과제> <한국의 세계화 과정과 한반도의 장래> <한·EU간의 경제·무역관계> <EU와 동북아시아> <한국과 EU의 보도비교>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공공이익과 언론인의 훈련> 등 8개 주제는 정치문제보다 경제문제에 초점. 한국측 이문희(단장, 편협부회장)등 13명이 참가.

10.06 편협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초청 <오늘의 한국정치와 새정치 국민회의>주제로 제35회 금요조찬대화 개최.

10.23 편협은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일본신문협회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3회 한일편집 간부 세미나 개최.
<21세기 한일 관계와 보도의 역할>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무라야마 일본 수상의 <한일합방 조약에 관한 망언>으로 빚어진 양국간의 냉기로 분위기가 다소 긴장됐

으나 마무리 단계에선 미래지향적인 21세기로 향한 보도자세 의견교환으로 분위
기 일신.

- 10.27** 편협은 호딩 카터 3세 초청. <21세기의 언론 매체-미국 언론의 당면과제>주제 제
36회 금요조찬대화.
- 11.09** 편협은 11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보도와 사실의 책임한계>조두흠(한
국일보 고문)과 <밖에서 본 한국논설의 문제점> 김정기(외국어대 교수)의 주제는
문 발표로 전국신문·방송·통신사 논설, 해설위원 세미나 개최.
- 11.10** 편협은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시아 3개국 언론인 세미나>를 추진키 위해
일본신문협회에 의사 타진, 세미나 추진목적은 언론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 중
국등 인접한 동북아 3개국간의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이해증진을 기하하는데 목적
을 두고 북한에도 이의 참여를 요청기로 함.
- 11.30** 남시욱 협회회장은 문화일보 사장으로 영전.

1996

- 01.23** 편협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4회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 성병욱 부회장(중앙
일보주필)을 새회장으로 선출. 후임 부회장에 남중구(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 보
선. 회칙을 개정<한국신문편집인협회>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로 명칭 변경.
남시욱 전임회장을 협회고문으로 추대.
- 02.09** 편협은 이회창 신한국당 선거대책위원장 내정자를 연사로 초청 <현시국에 있어서
의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제37회 금요조찬대화.
- 02.16** 신문윤리강령 개정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 개정안>
을 마련 편집인협회, 신문협회, 기자협회 등 언론 3개 단체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신문윤리강령 개정 공청회>개최.
- 03.07** 편협은 9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선거보도>란 주제로 신문·방송·통
신사 정치부장 세미나를 개최.

- 김대중(편집부회장 조선일보 주필)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이상우(서강대 교수)와 정구호(미디어 리서치 사장)가 주제 발표.
- 03.22**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위원장 송민 국립국어연구원장)는 10차 회의를 열고 컴퓨터 용어 등 73개의 외래어를 심의 결정.
- 04.08** ▷제40회<신문의 날>기념 석상에서 편집·신문협회·기자협회 등 공동으로 개정한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의 선포식 거행. 신문주간 표어 <자유로운 언론 책임있는 신문>.
- ▷김영삼대통령은 신문의 날이 바로 <독립신문 발간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임을 상기하며 치사.
- 04.14** 보도용어 통일 심의위원회는 96년도 제2차 회의 <96애틀랜타 올림픽 선수명 표기집> 발간사업 추진기로 결정.
- 04.16**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는 제11차 회의를 개최, 헝가리 대통령 등 인물 35건과 미국 프로야구단 이름 등 30건을 심의 결정.
- 04.25** 편집, 29일까지 전남 완도 씨월드호텔에서 <선거보도와 문제점>을 주제로 제32회 매스컴 세미나 개최. 전국 신문, 방송, 통신사 편집국장·보도국장등 60여명 참석
주제논문 : <4·11선거보도의 반성> (조용중, ABC협회 회장)과 <새 신문 윤리강령이 담고 있는 새언론윤리> (김정기 외국어 대교수) 발표 토론.
- 04.26** 9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96년도 언론자금 특별 회계예산 1억5천4백 80만 원을 원안대로 승인. 중앙일보, 연합통신, 서울방송등 기존 12개사에서 신청한 61명과 광주매일, 인천일보, 전북도민일보, 전주일보, 중부일보 등 신생사 요청 48명 등 109명의 신규가입 신청을 승인.
- 05.03** 편집인 협회는 이수성 국무총리를 연사로 초청 <후기 내각의 과제와 역할>이란 주제로 제38회 금요조찬대화 개최.
- 05.22** 편집인협회는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을 연사로 초청 <우리 경제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제39회 금요조찬대화 개최.
- 06.13** 편집인협회는 15일까지 제주 KAL호텔에서 <보도와 책임>을 주제로 사회부장 세

미나를 개최, 전국신문·방송·통신사 사회부장 50여명 참가하여 양삼승 대전고법 부장판사의 〈보도와 책임〉과 김정기외국어대 교수의 〈신문윤리강령과 진실성 원칙〉 주제논문 발표후 토론.

- 07.19**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위원장 송민)는 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회의. 외국중요인사 이름과 미국프로농구 NBA팀 명칭 심의, 표기통일.
- 08.29** 편협 회장단·운영위원장 회의를 열고 회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월회비 1만원으로 인상결정.
- 09.10** 편집인협회는 프레스센터에서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연사로 초청 〈96년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주제로 조찬대화 개최.
- 09.16**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위원장 송민)는 프레스센터에서 제13차 회의를 개최.
김영삼 대통령의 중남미 9개국 순방국 대통령 이름과 미국 대통령 선거 후 보자, 러시아의 열친 내각 명단 등 외래어 93개를 심의 결정.
- 10.09** 편협은 EU본부와 공동으로 13일까지 서울 호텔 신라에서 〈한·EU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주제로 제4회 언론인 세미나를 개최,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의 기조연설로 시작.
주제논문 발표자
▷한국측 :
· ASEM에 의한 새로운 시대와 EU와 한국간의 경제협력(장현준·중앙일보 논설위원)
· 한국과 EU의 문화협력-미디어의 할 일(윤호미 조선일보부국장)
· 한반도 안보환경과 남북관계의 전망(정일화 한국일보 편집위원)
▷EU측 :
·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에 대한 EU의 견해(레이나르트 드리프테·뉴캐슬대 교수)
- 10.21** 편협은 일본신문협회와 공동으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일본프레스센터에서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와 스포츠보도〉을 주제로 제34회 한·일 편집간부세미나를 개최. 한·일 양국에서 46명의 체육부장이 참석〈공동개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언론의 역할〉을 솔직하고 폭넓게 의견교환.

주제발표 : 〈2002 한일공동 개최의 사적의의와 언론의 역할〉방석순(스포츠서울 편집부국장), 〈월드컵 한일공개의 스포츠보도〉財德健治(도쿄신문운동부 차장)

- 11.14**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외부 지원없이 독자적인 사업추진기금 마련코자 〈재단법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금〉을 설립키로 하고 11월 14일 공보처의〈법인설립허가〉에 이어 11월 19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침.

※ 재단법인 편협기금 창립 임원명단.

· 이사장 : 성병욱(중앙일보 주필) · 이사: 이문희(한국일보 주필) 김대중(조선일보 주필) 남중구(동아일보수석논설위원) 최동호(KBS부사장) 이창우(부산일보 논설고문) · 감사: 최규영(한국경제신문 상무) 최종명(강원일보 전무)

- 11.15** 편집인협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권오기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초청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제41회 금요조찬대화 개최.

- 11.28** 편협은 30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사설과 오피니언 페이지의 활성화〉란 주제로 논설위원·해설위원 세미나를 개최.

주제 : 사설과 의견기사의 활성화(안광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사설과 오피니언 페이지의 활성화(안재훈 WP지 온라인 뉴스에디터)

- 12.12**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위원장 송민)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제14차 회의소집 96년도 노벨상 수상자(6개부문 16명)를 비롯 방한 예정 외국국왕, 대통령, 국무총리등 이름과 일본 교본 제12기 내각 명단 및 미식축구(NFL)팀 이름 등 85개를 심의결정.

- 12.30** 재단법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은 재정경제원으로 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0호에 의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및 용도 지정 통보.

1997

- 01.24**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45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 회장에 성병욱 중앙일보 주필을 유임시키고 임원진 개편.
- 회장 : 성병욱(중앙일보 주필)
 - 부회장 : 남중구(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 최청림(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 이성준(한국일보 상무), 이영일(KBS 제작보도국장), 공이송(광주일보 주필)
 - 이사 : 홍성만(경향신문 논설주간) 이 랑(국민일보 논설위원실장), 문명호(문화일보 수석논설위원), 김호준(서울신문 논설위원실장), 목정균(세계일보 논설위원실장) 이정근(매일경제 이사), 김강정(MBC 해설주간), 송도균(SBS보도본부장), 정두진(CBS해설주간), 이재현(대전일보 논설위원실장), 오영목(매일신문 상무), 강병희(제주일보 이사 겸 논설위원)
 - 감사 : 최규영(한국경제 상무) 변재용(부산일보 논설위원)
- 01.24** 이견희 삼성그룹회장은 24일 재단법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에 10억원을 기탁 기금누계 11억원.
- 02.21** ▷재단법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은 제3차 이사회를 개최 안병훈 전 편집회장(조선일보 편집인 겸 전무)을 이사장 선임. 새로 선임된 임원 명단.
- 이사장 : 안병훈(조선일보 편집인 겸 전무)
 - 이사 : 성병욱(중앙일보 주필), 남중구(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 최청림(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 이성준(한국일보 상무), 이동화(서울신문 주필), 공이송(광주일보 주필), 이문호(연합통신 편집국장)
 - 감사 : 변재용(부산일보 논설위원) 최종명(강원일보 부사장)
- ▷편협은 회장단 회의를 열고 임기2년의 상임 위원장을 선출
- 심사위원장 김종식(경향신문 판매국장)
 - 보도자유위원장 조시행(중앙일보 뉴미디어 본부국장)
 - 국제위원장 정일화(한국일보 논설위원 겸 통일문제연구소장)
 - 남북교류위원장 도준호(조선일보 대기자 (부국장))

- 보도용어 통일심의 위원장 정복수(스포츠서울 부국장)
- 03.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는 제 15차 회의 개최. 정부측 대표 이익섭 국립국어 연구원장을 위원장, 언론측 대표 정복수 편협보도용어통일심의위원장(스포츠서울 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다음 새로 출범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제2기 내각 명단과 주한 외국대사 이름을 심의 결정.
- 03.28 편협은 창립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30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21세기 한국언론의 좌표>란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
 - 제1주제 : 멀티미디어 시대의 한국 언론-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언론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인보길(디지털 조선일보 사장)
 - 제2주제 : 언론의 책임-언론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유재천(한림대 교수)
 - 제3주제 : 남북문제와 보도: 김석우(통일원 차관)
- 04.07 편협, 창립40주년 기념전시회를 프레스센터 1층로비에서 <편협의 활동과 역할>을 주제로 12일까지 성황리에 개최.

▷편협 창립 40주년과<신문의 날>제정 40주년이 되는 제41회 신문의 날 기념식과 리셉션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거행, 신문의 날 표어 <흔들리지 않는 언론 백리길은 튼튼> <확인보도 책임언론, 공정보도 공익언론>
- 04.18 편협은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위원을 초청 <한국정치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제42회 금요조찬대화 개최.
- 05.01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3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선거·여론조사 보도 및 남북관계보도>란 주제로 개최한 97년도 전국신문·방송·통신사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에는 50여명이 참가 통일 정책과 관련된 남북 문제 보도와 97년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등 선거보도의 방향 논의.
 - 주제연설<남북관계 보도> : 권오기(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 주제논문 발표<선거여론조사 보도> : 박무익(한국 궤협조사연구소장)

- 05.02** 편협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97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 운영위원장에 오철호(연합통신 편집국장)를 선출.
- 05.15** 편협은 한국프레스센터와 공동 16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환경저널리즘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환경담당세미나 개최.
· 현대 한국의 환경 언론 :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환경과 언론 : 장 원(녹색연합 사무총장·대전대 교수)
- 05.30**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위원장 이익섭)는 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새로 출범한 영국 노동당 블레어 내각 22명의 각료명단 표기 등 183건의 표기를 심의 결정.
- 06.02** 편협은 한국 프레스센터(이사장 조남조)와 공동으로 5일까지 호텔 신라에서 <환경과 개발-조화를 위한 추구>란 주제로 97년도 국제환경 저널리스트 대회를 개최.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에 즈음하여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 인구 기금(UNFPA)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후원으로 세계 16개국에서 환경전문 언론인 30여명을 비롯 유엔 관계자 20명과 한국 측 대표 10명등 참석.
· 제1주제 : 환경과 개발의 이상적 조화
발제자 : 이명균(LG경제연구소 환경연구실장)
MS Christine Alfsen Norodom(UNESCO 환경실장)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제2주제: 환경과 개발의 조화: 그 현황
발제자 : 서상목(한국아동인구 환경의원 연맹의장) Mr, Gourisankar Ghosh (UNICEF 환경위생국장) 장원(대전대 교수) Mr, Tore Brevik(UNEP 공보국장)
· 제3주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공동사회 : Mr, Arne Fjortoft(YA·TV국장) Mr, Peter Fischer(DPA지국장)
- 06.27** 편협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다음 정권의 경제개혁 과제>를 주제로 97년도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경제부장 세미나를 개최.

- 연설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 강경식(경제부총리)
- 주제논문발표 <다음정권의 경제개혁 과제> :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
- 07.01** 편협, 긴급 보도자유위원회를 개최. 6월 24일자 조선일보 「김정일 물러나야」제하의 사실에 대해 북한측이 <조선일보를 폭파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는 것은<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한국언론 전체에 대한 심각한 탄압행위>라고 규정. 북한당국에 위협행위의 즉각 중단 및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08.12** 편협 보도자유 위원회는 검찰이 3개 스포츠 신문의 전·현 편집국장과 연재만화가 등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한데 우려를 표명 사법당국이 보다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 촉구 성명 발표.
- 09.03** 편협은 EU본부와 공동으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새 유럽 체제와 한반도」를 주제로 제5회 한·EU언론인 세미나 개최.
- 09.24** 정부·언론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개최,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와 소련해체 이후 변경된 지명등의 명칭 370여개를 심의 결정.
- 10.01** 편협, 전남화순 금호리조트에서 편집·보도부국장 세미나를 개최.
 - 주제 : <선거보도-TV토론, 미국의 경우> : 이효성(성균관대교수)
 - <국가경쟁력과 문화자본주의> : 김종훈(현대 경제사회연구원장)
- 10.08** 편협, 일본신문협회와 공동으로 「21세기의 한일관계와 보도의 역할」을 주제로 제35회 한·일 편집간부세미나를 양국 편집·정리부장이 모여 서귀포 KAL호텔에서 개최.
 - 주제발표자 : 한국측-노정선 (연합통신 편집부국장)
 - 일본측-一玉井葵(애원신문 편성부국장)
 - 특별연사 : 김석우(통일원 차관)
- 11.05** 편협, 서귀포 KAL호텔에서 「대통령 선거보도와 논평」을 주제로 논설·해설위원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 조용중(언론인·ABC협회회장) 「97대통령선거보도의 개선점」 오택섭(고려대 교수) 「미국 언론의 대선보도와 논평」

- 11.14 편협은 제43회 금요조찬대화를 프레스센터에서 KEDO 앤더슨사무총장을 초청 「남북관계와 경수로 사업」을 주제로 개최.
- 11.19 정보·언론 외래어심의위원회는 제19차 회의를 개최, 세계 191개국 국명·수도 명·화폐단위와 노벨상수상자 등과 일반용어를 심의 결정.
- 11.20 편협보도자유위원회는 북한당국이 KBS가 제작중인 「진달래꽃 필 때까지」제목의 드라마를 트집잡아 「KBS폭파 및 제작진 살해」 위협함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즉각 위협을 중단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 12.17 편협은 조선일보 17일자 기사내용에 불만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인 언론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가한 국민신당측에 즉각 사과와 책임자에 응분조치를 촉구 하는 성명발표.

1998

- 02.18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20차 심의회를 열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지에 걸쳐 있는 42개에 달하는 각 국 영토명, 중요도시, 통화, 언어 등과 1945년 이후 수 소련에 강점된 일본령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 이 등 지명을 심의.
- 03.02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강인덕(康仁德) 통일부 장관을 초청, 「국민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기조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44회 금요조찬대회 개최.
- 04.06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 군사정권에 빼앗긴 「신문회관」을 다시 설립 복원하겠다는 의지 천명.
- 05.01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진념(陳稔) 예산위원장을 초청, 「국가 경영혁신에 관하여」란 주제로 편집·보도국장과의 대화 개최.
- 05.01 2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편집·보도국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유재천(劉載天) 한림대 교수 「한국위기와 언론의 역할」
- 이진순(李鎭淳) KDI 원장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 05.22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21차 심의회를 열고, 케냐 모이 대통령과 이스라엘 바이츠만, 캄타이 라오스, 쿠찬 슬로베니아, 클레리데스 키프로스, 수하르트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6개 국가 원수를 비롯, 리포넨 핀란드 총리와 마지파이 인도, 시사마트 라오스, 페르손 스웨덴 총리, 키리엔코 러시아 총리대행 등 5개 국가 수반의 우리말 표기를 심의, 결정.
- 05.29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을 초청,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제45회 금요조찬대화 개최.
- 06.26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경제부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엄봉성(嚴峰成)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IMF 관리 경제의 방향과 경제보도」
 - 장현준(張鉉俊) 중앙일보 논설위원 「경제위기와 언론의 역할」
- 08.21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고건(高建) 서울시장을 초청, 「21세기를 향한 서울시장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46회 금요조찬대화 개최.
- 10.20 21일까지 무주 티론호텔에서 원로언론인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안광식(安光植) 이화여대 명예교수 「언론인들의 사명과 책임 — 사회봉사의 방향」
 - 허정(許程)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의 건강강좌로 진행.
- 10.26 일본신문협회와 공동으로 31일까지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의 한·일관계와 보도의 역할」을 주제로 제36회 한·일 편집간부세미나 개최.
 - 한국 측 문창재(文昌宰)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주제발표와 일본 측 오노 다키히로 교토통신 논설위원 겸 편집위원의 주제 발표 후 토론.
- 11.27 28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논설 · 해설위원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 김경원(金瓊元) 사회과학원장 「남북교류와 안보」
 - 박영상(朴永祥) 한양대 교수의 「남북교류와 언론보도의 함수관계」

1999

- 01.26**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12대 회장에 남중구(南仲九) 동아일보 통일연구소장(前 논설주간)을 선출하고 임원진 개편. 부회장 최청림(崔靑林) 조선일보 논설실장, 장명수(張明秀) 한국일보 주필, 이상열(李相悅) 前 MBC 보도본부장, 오철호(吳哲鎬) 연합뉴스 상무, 홍종흠(洪宗欽) 매일신문 논설위원, 감사 변도은(邊道殷) 한국경제 주필, 문명호(文明浩) 문화일보 논설실장이사, 이실(李實) 경향신문 주필, 이종대(李鍾大) 국민일보 주필, 우홍제(禹弘濟) 대한매일 논설실장, 안영모(安英模) 세계일보 주필, 전병채(全炳燾) KBS보도본부장, 송도균(宋道均) SBS사장, 정두진(鄭斗鎭) CBS방송본부장, 이정근(李正根) 매일경제 상무, 안기호(安淇鎬) 부산일보 논설주간, 조동수(曹東秀) 광주일보 주필, 곽대연(郭大淵) 대전일보 이사·논설실장, 고영(高永璵) 제주일보 이사·논설실장 운영위원장에 한남규(韓南圭) 중앙일보 편집국장 선출. 성병욱(成炳旭) 전임회장을 협회고문으로 추대.
- 02.1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임기 2년의 상임위원장 선임. 심사위원장 문창재(文昌宰) 한국일보 논설위원, 보도자유위원장 최맹호(崔孟浩)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국제위원장 신동욱(申東旭) 매일경제 논설위원, 남북교류위원장 도준호(都俊鎬) 조선일보 논설위원, 보도용어통일위원장 김진선(金鎭善) 중앙일보 교열부장.
- 04.06** 제43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 편협·신문협회·기자협회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꿰뚫어 보는 혜안을 키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히고 민족·국가·지역간의 갈등을 통합하는 좌표를 제시하여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자」는 『우리의 다짐』을 채택.
올해의 표어로 “새로운 천년 신문과 함께” 선정.
- 04.15**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임동원(林東源)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을 초청, 「한반도의 냉전종식」이라는 주제로 제47회 조찬대화 개최.
- 04.30** 5월 1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신문·방송·통신사 편집·보도국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새로운 세기의 국가비전」
- 05.07** 주한 미국 공보원과 공동으로 8일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본 한·미 관계」라는 주제로 지방지 논설위원 세미나 개최.
한·미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홍종흡(洪宗欽) 매일신문 논설위원과 페어팩스 미대사관 경제참사관이, 통상관계는 브란트 미대사관 농무참사관과 웨어 미대사관 대리상무참사관이, 한·미간의 정치·안보문제는 박향구(朴香求) 광주일보 논설위원과 미대사관 정치담당일등서기관이 주제발표 후 토론.
- 06.18**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을 초청, 「제2기 내각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제48회 금요조찬대화 개최.
- 07.02** 3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서해교전 이후 한반도 안보와 평화」라는 주제로 편집·보도 부국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송영대(宋榮大)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 서대숙(徐大肅) 하와이대 교수.
- 08.30**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29차 심의위를 열고, 인도의 대표적 도시 「캘커타」를 「콜카타(Kolkata)」로 적기로 했다. 이 밖에 영국식민지시대의 호칭인 인도의 뭍베이를 「뭍바이」로, 마드라스를 「첸나이」로 표기하기로 심의, 결정.
- 09.17** 18일까지 강원도 설악파크호텔에서 「부패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회부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김성수(金成洙) 반부패국민연대 회장, 이석연(李石淵) 변호사.
- 10.20** 일본신문협회와 공동으로 22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한·일간의 문화 교류와 미디어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37회 한·일 편집간부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 이헌익(李憲益) 중앙일보 문화부장
야마모토 야스오 산케이신문 편집국차장.
- 11.10** 11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보도사진, 새 천년의 과제」라는 주제로 사진·영상취재부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구자호(具滋虎) 조선일보 사진부장, 양종훈(梁宗勳) 상명대 교수.

- 12.10 11일까지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언론윤리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논설·해설위원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임상원(林尙源) 고려대 교수, 권오기(權五琦) 前동아일보 사장.
- 12.15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31차 심의위를 열고, 월드컵 마스코트 「애트모」, 포켓몬 주인공은 「피카추」로, 월드컵 예선 출전국 가운데 Faeroe, Montserrat은 각각 「페로」, 「몬트세랫」으로 적기로 심의.

2000

- 03.10 11일까지 제주 KAL호텔에서 「4·13 총선과 공정보도」라는 주제로 제36회 편집·보도국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이용훈(李容勳)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05.30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33차 심의위를 열고, Genom의 우리말 표기를 「게놈」으로 하기로 결정.
- 06.23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을 초청,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제49회 조찬대화 개최
- 06.30 7월 1일까지 제주 KAL호텔에서 「변화의 한반도와 국제시각」이라는 주제로 국제부장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박정찬(朴程讚) 연합뉴스 국제뉴스2부장
김경민(金慶敏) 한양대 교수
이인호(李仁浩)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박승준(朴勝俊) 조선일보 국제부장.
- 10.06 7일까지 속초 설악파크호텔에서 「인터넷시대의 시사매거진」이라는 주제로 주간·월간·특집부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황의봉(黃義鳳) 신동아팀장
김종명(金鐘明) 부산일보 특집부장.

- 10.18** 19일까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아시아유럽재단(ASEF), 한국언론재단과 공동으로 제2차 ASEF 언론인 세미나 개최.
26개 ASEM 회원국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언론인 50여명이 참가하여 「여론과 외교정책에 끼치는 언론의 영향」,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언론의 역할 — 동티모르와 코소보의 사태의 경우」, 「언론사 소유의 권한과 책임」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
- 10.27**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35차 심의위를 열고, 콜롬비아의 수도 「산타페데보고타(Santa Fe De Bogota)」를 「보고타(Bogota)」로 적기로 심의, 결정.
- 10.30** 11월 4일까지 일본신문협회와 공동으로 「한·일간의 경제협력과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일본 동경에서 제38회 한·일 편집간부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 신동욱(申東旭) 한국경제 전문위원
야마오카 구니히코 요미우리신문 논설위원.
- 12.08** 9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2001년의 남북관계」를 주제로 주필 주간 논설·해설위원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 정중욱(鄭鍾旭) 아주대 교수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 12.18**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37차 심의위를 열고, E-mail을 「전자 우편」으로 적기로 심의.

2001

- 01.01**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제9차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이사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선출.
· 이사장 안병훈(安秉勳) 조선일보 부사장, 연임
이 사 남중구(南仲九) 동아일보 평화연구소장, 연임
성병욱(成炳旭) 중앙일보 고문, 연임

이성준(李成俊) 한국일보 부사장, 연임
 최청림(崔靑林)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 연임
 문명호(文明浩) 문화일보 논설주간, 신임
 전병채(全炳燾) KBS 미디어 사장, 연임
 감사 권영국(權寧國) 강원일보 서울지사장, 연임
 이정근(李正根) 매일경제 상무이사 겸 주필, 신임

- 01.29**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4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13대 회장에 고헌용(高學用)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선출하고 임원진 개편. 부회장 문명호(文明浩) 문화일보 논설주간, 김영배(金榮培)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 배기철(裴琪哲) 한국일보 상무·편집인, 류근찬(柳根燾) KBS 보도본부장, 안기호(安淇鎬) 부산일보 논설주간.

감사 이실(李實) 경향신문 주필, 이정근(李正根) 매일경제 주필.

이사 백화중(白和鍾) 국민일보 주필, 임영숙(任英淑) 매한매일 논설위원실장, 구분홍(具本弘) MBC해설주간, 신찬균(申瓚均) 세계일보 주필, 이남기(李南基) SBS제작본부장, 김원호(金源鎬) 연합뉴스 논설위원실장, 신상민(申相民) 한국경제 논설위원실장, 이기중(李琪中) 전자신문 주필, 김영기(金永琪) 강원일보 논설주간, 조동수(曹東秀) 광주일보 주필, 서상호(徐相浩) 매일신문 주필, 김경호(金景浩) 제주일보 논설위원실장.

운영위원장에 최규철(崔圭徹) 동아일보 편집국장 선출.

남중구(南仲九) 전임회장을 협회고문으로 추대.

- 02. 9**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01년도 제1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5개 분과위원장 선임. 심사위원장 문창개(文昌宰) 한국일보 논설위원, 보도자유위원장 정중헌(鄭重憲) 조선일보 논설위원, 국제위원장 정우량(鄭宇亮) 중앙일보 편집위원, 남북교류위원장 김재홍(金在洪) 동아일보 논설위원, 보도용어통일심의위원장 김충수(金忠洙) 조선일보 교열부장.

- 03.23** 24일까지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이라는 주제로

2001년도 편집·보도국장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남시욱(南時旭) 고려대 신방과 교수

김학수(金學銖) 서강대 신방과 교수.

- 04.06**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 45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개최.
- 04.10**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아일보 기자의 출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성명 발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정부에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
- 04.12**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언론인의 전문성」을 주제로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 박영상(朴永祥) 한양대 신방과 교수와 김창룡(金昌龍)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김종래(金宗來) 조선일보 편집위원, 정운현(鄭雲鉉) 매한매일 문화부 차장, 박수택(朴秀宅) SBS보도국 차장이 패널리스트로 참석.
- 04.16** 정부의 신문고시 부활 강행과 관련,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를 안고 있는 신문고시 부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 04.20**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39차 심의위를 열고, 海南島는 ‘하이난 섬’으로 표기하고,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은 ‘인간 광우병’으로 순화해서 적기로 했으며, 스미소니언을 ‘스미스소니언’으로 바르게 표기하기로 함. 또 지난 3월에 발족한 이스라엘 내각과 제73회 아카데미상 수상자, 최근 일간 신문과 방송 매체 등에 보도된 정치·예술 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이름도 심의.
- 04.27** 주한 미국 공보원(USIS)과 공동으로 28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새천년을 위한 한·미 관계」를 주제로 지방지 논설위원 비공개 세미나 개최. 정치·안보분야에 정서환 부산일보 논설위원,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관, 경제·무역분야에 서상호 매일신문 주필, 리처드 삭스 주한미국대사관 경제담당관 주제발표 후 토론.

- 05.11 12일까지 부산 웨스틴조선비치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경제부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상임부회장.
- 05.31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외무장관을 초청, 「한·호 통상 무역 및 남북한과 호주와의 상호관심사」를 주제로 제51회 편협 대화 개최.
- 06.15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정몽준(鄭夢準) 2002년 월드컵축구 대회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초청, 「2002년 월드컵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주제로 제52회 금요조찬대화 개최.
- 06.22 23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정치권력과 언론」을 주제로 논설·해설위원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 언론인 정경희(鄭璟喜)씨
김동익(金東益) 중앙일보 고문.
- 06.27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40차 심의위를 열고, 중국 지명은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엔벤’, ‘엔지’ 등은 ‘연변’, ‘연길’로 적기로 심의.
- 07.02 국제청이 6개 언론사에 대해 조세법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권력의 언론자유 침해행위」라며 강경투쟁을 선언.
- 08.03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초청, 「하반기 경제전망」을 주제로 제53회 금요조찬대화 개최.
- 08.13 6개 언론사 사법처리와 관련 성명을 내고, 언론사 대주주나 임원들이 법리를 무시한 채 인신구속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
- 08.20 언론사 대주주 구속과 관련 성명을 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무시한 채 정부가 언론사 대주주의 구속을 강행한데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힘.

- 08.28**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41차 심의위를 열고, 유엔인간거주센터의 통칭인 HABITAT을 ‘해비탯’으로 적기로 하는 등 심의 결정.
- 09.26** 정동채 의원 발언과 관련 성명을 내고, 프레스센터에 일정지분이 있는 편협 등 언론단체를 아무 상관도 없는 모 입주단체와 비교해 무상입주하고 있다고 폄하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
- 10.12** 13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정치개혁」을 주제로 정치부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한화갑(韓和甲) 민주당 최고위원
최병렬(崔秉烈) 한나라당 부총재.
- 10.26** 언론탄압의 실상이 한겨레신문 전 청와대 출입기자의 저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구속된 언론사주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소된 6개 중앙언론사의 혐의 내용 대부분이 먼지털이식 께맞추기의 결과임을 감안 공정하게 판결해 줄 것을 요구.
- 10.30**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42차 심의위를 열고, 미국 마이어스 합참의장과 리지 국토안전보장국장(장관급)을 비롯 각 국 원수 14명과 수반급 34명 이름의 우리말 표기를 심의 결정.
- 11.09**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김정기(金政起) 방송위원장 초청, 「디지털시대의 방송의 공영성」을 주제로 제54회 금요조찬 대화 개최.
- 11.16** 17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문화월드컵」을 주제로 문화부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남궁진 문화관광부장관
이연택 월드컵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 11.23** 24일까지 속초 설악파크호텔에서 「디지털시대의 포토저널리즘」을 주제로 사진·영상부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하동환 중앙대 사진과 교수 「디지털 사진의 오늘과 내일」
이병훈 고려대 강사 「디지털 사진과 윤리」
- 12.07**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초청, 「중국의 외교정책과 한·중 관계」를 주제로 제55회 금요조찬대화 개최.

박승준 조선일보 전문기자와 최필규 한국경제 국제부장 패널리스트로 참석.

- 12.10**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43차 심의위를 열고,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잠정 행정기구 의장을 비롯 세계 주요 인사와 프랑스 주통합지역과 주명 등의 우리말 표기를 심의 결정.

2002

- 02.01**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손길승 SK회장을 초청, 「한국기업 살리는 길」을 주제로 제56회 금요초찬대화 개최.
- 02.06** 북한의 조선일보 위협과 관련, 성명을 내고 『특정신문을 지칭해 사형선고·매장 등 극한적인 표현으로 남한의 4개 단체가 배척운동에 나서도록 선동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행위이며, 남한 언론을 길들여보자는 고도의 책략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
- 02.14** 일부 여야의원의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정부개입의 길을 터놓고 있다』며 경영전반에 걸쳐 문화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정부가 언론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두고 있다고 지적.
- 02.28**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44차 심의위를 열고, 엠블럼을 「상징」 「표상」으로 순화해서 적기로 하는 등 심의 결정.
- 03.08** 9일까지 제주 서귀포KAL호텔에서 「선거개혁」을 주제로 편집·보도국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 이만섭 국회의장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03.11**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의 집에서 언론개혁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는 지난해 정부가 국내외 비관을 무릅쓰고 강행한 언론탄압조치와 연관돼 있으리란 점을 유추하기 어렵지 않다』며, 특검팀 역할의 한계 때문에 여의치 못하다면 검찰에 의뢰해서라도 진상조사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을 촉구.
- 03.22**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김재철 무역협회장을 초청, 「21세기 한국경제의 활로」를 주제로 제57회 금요조찬대화 개최.
- 04.04**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고태용), 한국신문협회(회장 최학래),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 공동개최로 제46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개최.
- 04.09**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45차 심의위를 열고,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현지음에 따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적기로 하는 등 심의 결정.
- 04.19** 20일까지 제주 서귀포KAL호텔에서 「월드컵과 언론보도」를 주제로 사회부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남궁진 문화관광부장관
이연택 월드컵조직위 공동위원장
유재천 한림대 교수
- 04.26**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을 초청, 「의약분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8회 금요조찬대화 개최.
- 05.14** ‘노사모’의 조폭신문, 절독운동 선언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노무현 후보에 대한 기사와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조폭언론으로 매도하다 못해 절독운동 운운하는 것은 그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 05.17** 18일까지 제주 서귀포KAL호텔에서 「언론과 언론인의 윤리」를 주제로 논설·해설 위원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 신중식 국정홍보처장
성병욱 중앙일보 고문
- 06.28**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46차 심의위를 열고, 머드제시 헝가리 총

- 리,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 리포트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을 비롯, 50여명의 인명을 심의.
- 07.05** 6일까지 강원도 용평리조트 내 드래곤밸리호텔에서 「남북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원로언론인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이성춘 前한국일보 이사 겸 논설위원
강철환 조선일보 북한문제전문기자
- 08.12**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이명박 서울 시장을 초청, 「청계천 복원과 교통 대책」을 주제로 제59회 편협대화 개최.
- 09.05**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47차 심의위를 열고, 우크라이나 주명과 주도명 리보프(러시아명)를 「리비프」로, 극동 러시아 콤소몰스크의 정식 명칭을 「콤소몰스크나아무레」로, 국가명 서(西)사모아를 「사모아」로 고쳐 적기로 결정.
- 10.11** 12일까지 제주 서귀포KAL호텔에서 「대통령 선거와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정치부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김원기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 10.28** 11월 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일본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월드컵 이후의 한일 관계」를 주제로 제39회 한·일 편집간부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김태익 조선일보 문화부장(한국 측)
야마모토 유지 도쿄신문 외신부차장(일본 측)
- 11.07**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48차 심의위를 열고, 금년도 노벨상 전 부문 수상자와 새로 등장한 각국 여러 분야 저명인의 우리말 표기를 심의, 통일해서 적기로 결정.
- 11.22** 23일까지 제주 서귀포KAL호텔에서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을 주제로 편집·보도국 부국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최병렬 한나라당 선대위 공동의장
정동영 새천년민주당 선대위 공동위원장

전성철 국민통합21 정책위 의장

- 12.12**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49차 심의위를 열고, 원 자바오, 자칭린 등 제16차 중국 공산당 대회서 선출된 2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및 정치국원 이름과 해외 정계, 학계, 연예계 등 주요 인사들의 표기를 심의, 통일해서 적기로 결정.

2003

- 01.29**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4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제14대 회장에 최규철 동아일보 논설주간을 선출하고, 임원진 개편.
- 02.20**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50차 심의위를 열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새로운 연합 국가명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및 미국 국무부 수뇌부 명단 심의.
- 03.17**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14일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언론관과 작금의 언론현실에 대한 원초적인 의문을 불러 일으키며, 정보시장은 어느 시장보다 자유로워야 하고, 언론개혁은 기본적으로 언론소관이 지 정부소관이 아니다』고 지적.
- 03.28** 정부가 27일 43개 부 처 청의 공보관회의를 소집해 확정 발표한 ‘기자실 운영방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에는 새 정부가 언론에 대해 갖고 있는 적대감과 언론 통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정부 부처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내놓을 경우 언론 고유의 감시기능은 실종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정보수요자인 국민의 균형잡힌 국정관단을 저해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 04.15**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51차 심의위를 열고, 중국 새 지도부와 제75회 아카데미상 수상자들의 우리말 표기를 심의,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함.
- 04.29** 한국신문협회의 신문고시 개정안 반대성명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에 개입해 직접 규제에 나선다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위협하는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만약 권력에 비판적인 특정 신문에 대해 편파적인 조사와 불공정한 제재를 가할 경우 언론의 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이번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

- 06.30**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52차 심의위를 열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미 중동군 사령관, 디자이너 콜린 애플드 및 방카슈랑스 은행보험, NEIS 교육정보 시스템 표기 심의.
- 07.04**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을 초청, 「의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제60회 금요조찬대화 개최.
- 07.11** 12일까지 제주KAL호텔에서 「새 정부의 외교정책」을 주제로 편집·보도국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국 대사.
- 08.04** 노무현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한 성명을 내고, 『노 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 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듯한 강경한 자세를 보였으며, 언론의 생명이 비판정신이라는 사실을 외면했고, 언론의 의제 설정까지 잘못됐다고 말한 것은 편집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으로, 의제 설정은 언론의 고유 기능이며 그 적절성 여부는 독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
- 08.14** 노무현 대통령이 신문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소송을 냈다는 것은 다른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의도적인 압력이며, 앞으로 직접 소송이 잇따를 경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이 약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이는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와 다름없다』고 지적.
- 09.03**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53차 심의위를 열고, 마다가스카르 등 10개국 대통령과 상투메프린시페 등 15개국 총리 이름의 우리말 표기 심의, 통일해서 적기로 결정.

- 09.19** 20일까지 제주 서귀포KAL호텔에서 「국어기본법 제정 배경」, 「중국어표기 문제 있다」를 주제로 교열부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김세중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연구부장
박승준 조선일보 전문기자.
- 09.22** 동아일보 기자에 대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취재거부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민의 알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정부라면 언론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취재 거부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조치이며, 취재 거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
- 10.09** KBS PD협회의 취재거부에 대한 편협의 입장이란 내용의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한 KBS PD협회의 취재 거부는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언론의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취재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한다』고 발표.
- 10.22**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54차 심의위를 열고, NATO 사무총장, IFAD 총재 보예 및 노벨상 11명의 수상자와 일본 고이즈미 개편내각명단을 심의,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함.
- 10.27** 30일까지 제주 서귀포KAL호텔과 서울 롯데 호텔에서 「북한을 보는 韓·日の 시각」을 주제로 제40회 한·일 편집간부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한국측)
하사바 기요시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일본측)
- 12.12** 13일까지 제주 서귀포KAL호텔에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논설·해설위원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 박관용 국회의장
- 12.17**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제55차 심의위를 열고, 동티모르 대통령 사나나 구스망,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키프로스 대통령 글라프코스 이림의 우리말 표기 심의, 통일해서 적기로 결정.

2004

- 02.26**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56차 심의위를 열고, 「오스카르 베르헤르」과 테말라 새 대통령과 티베트 종교·정치 지도자 달라이 라마(× 다라이 라마)로 바르게 통일해서 적기로 결정.
- 04.06**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최규철),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 공동으로 제48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개최.
- 04.22**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57차 심의위를 열고, 주한미국대사 크리스토퍼 힐과 2003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 Coetzee를 「쿠체」로 적기로 결정.
- 04.30** 5월 1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북핵 6자회담과 한국 외교의 과제 및 대책」을 주제로 국제부장 세미나 개최.
- 05.28**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58차 심의위를 열고, 엘살바도르,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오스트리아 등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라오스 총리 분냥 보라চিত을 비롯, 스페인, 인도, 그리스, 요르단 등 5개국의 새 총리들 이름을 심의, 바르게 적기로 결정.
- 06.18** 19일까지 부산 매리어트 호텔에서 「전문기자 제도 어디까지 왔는가」를 주제로 전문기자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김사승 박사(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
최성환 조선일보 경제전문기자.
- 07.12** 「정권의 對언론공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특정 신문에 대한 정권의 연속적인 공격은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서 신문의 비판 기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입증하며, 현 정권이 '신문과의 전쟁'을 선포하듯 비판언론에 족쇄를 채우려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임을 경고한다』고 발표.
- 07.23**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59차 심의위를 열고, EU 유럽위원장 두랑 바로주, CIA 부국장 매클로플린, 이라크 총리 이야드 알라위, 알자르카위 알카에다 테러조직 간부 등 인명 우리말 표기를 심의 결정.

- 09.10 11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 호텔에서「참여정부의 정책성과와 2기 내각의 국정 운영방향」을 주제로 편집·보도국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이해찬 국무총리
- 09.23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60차 심의위를 열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체첸 대통령을 비롯, 체코, 이집트, 폴란드, 포르투갈, 파키스탄 및 알제리 신임 총리 이름의 심의, 바르게 표기하기로 결정.
- 10.18 「‘언론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언론계를 적과 동지로 나누고 나아가 사회적 분열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편 가르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위협하고 권력의 자의(恣意)에 따라 사회를 획일화시키려는 악법에 우리는 당당히 맞설 것이다』고 발표.
- 10.28 11월 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일본신문협회와 공동으로「北韓을 보는 韓日의 시각」을 주제로 제41회 한일편집간부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김인구 조선일보 북한전문기자(한국측)
야수오 요시수케 교도통신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일본측)
- 12.15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61차 심의위를 열고, 우크라이나 대선 후보 ‘빅토르 유셴코’와 미국 제2기 부시 정권 신각료, 일본 고이즈미 2차 개편 내각 명단, 2004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비롯 5개 부문 수상자의 표기를 심의, 바르게 적기로 결정.
- 12.17 18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한류열풍」을 주제로 논설해설위원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가모시타 히로미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이기진 대중문화비평가.
- 12.28 박기정 언론재단 이사장 임명거부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번 파문을 정권이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언론통제를 획책하려는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로 받아들이며, 이번 파문으로 빚어질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발표.

2005

- 04.22** 23일까지 제주도 제주KAL호텔에서 「독도문제를 보는 韓日언론의 보도태도」를 주제로 편집·보도국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손태규 단국대 언론학 교수.
- 04.26**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62차 심의위를 열고, 미국 영화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스코시즈), 테리 「사이보」, 힐러리 앤 「스웹크」로 적기로 결정.
- 05.20** 21일까지 속초 설악파크호텔에서 「언론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간부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김택환 중앙일보 미디어전문기자.
- 06.22**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63차 심의위를 열고, 모잠비크,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이티, 에콰도르, 이라크, 중앙아프리카, 키르기스스탄, 토고 등 9개국 대통령과 레바논, 몽골, 불가리아, 안티가 바부다, 체코 등 5개국 총리 이름을 심의, 바르게 적기로 결정.
- 07.20** 「신문법 시행에 대한 편협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법의 시행으로 한국의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침해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며, 정치권은 이 법의 위험적 해악적 요소를 없애는 법개정에 나서든지 폐지해야 하고, 우리는 이 법의 시행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08.24**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64차 심의위를 열고,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을 비롯, 노트(마셜 제도), 라슬로(헝가리), 아마디네자드(이란) 대통령과 바드란(요르단), 베랑제(모리셔스), 알시니오라(레바논) 총리 등의 표기를 심의, 바르게 표기하기로 결정.
- 10.26**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일본신문협회와 공동으로 「韓日관계 재정비 방향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제42회 한·일 편집간부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김충식 동아일보 논설위원(한국측)
사사키 마코토 시사통신 편집위원(일본측).

- 11.02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65차 심의위를 열고, 미국 대법관 지명자 Samuel Alito를 「새뮤얼 얼리토.AH L I Y T O W.」로 적기로 하였으며, 2005년도 노벨상 6개 부문 수상자 12명과 새로 선출된 말라위, 세이셸, 소말리아, 폴란드, UAE 대통령과 총리 등 정치가와 외교관, 기타 인사들의 이름을 심의, 바르게 적기로 결정.
- 11.16 청와대와 정부의 홍보 책임자가 이른바 ‘정책홍보 업무처리 기준’을 근거로 공직자들의 기고·인터뷰를 제한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국정홍보처가 만든 이 홍보 기준은 정권에 비판적인 몇몇 언론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이는 언론 자유와 취재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청와대와 정부는 위협적이고 반언론적인 홍보 기준을 즉각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표.
- 11.30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66차 심의위를 열고, 미얀마의 새 수도명 「핀 마나」등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첫 여성 원수 「존슨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앙헬 구리아」 OECD 새 사무총장의 표기를 심의, 바르게 적기로 결정.
- 12.13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05 편협 송년의 밤』 개최. 안병훈 고문 (LG상남언론재단 이사장), 성병욱 고문(세종대 언론홍보대학원장), 남중구 고문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 고태용 고문, 최규철 고문,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이병규 문화일보 사장, 변용식 조선일보 편집인, 김영만 스포츠서울21 사장, 이상철 월간조선 사장, 이계민 한국경제 이사겸 주필, 하금열 SBS 상무(상임상담역) 등 언론계 간부 1백여 명이 참석.
- 12.21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67차 심의위를 열고, 지금까지 「오마르 봉고」로 불리던 가봉 대통령의 이름을 부성(父姓)을 부가해서 쓰기로 하였으므로, 「봉고 온딤바(Bongo Ondimba)」로 적기로 했으며, 네덜란드 저널리스트 Karel van Wolferen을, 두 음절 이상에서 마지막 음절의 e는 「어」로 적고, v가 어두나 모음 앞에선 「프」으로 적어야 하므로, 「카털 판볼페런」으로 표기하기로 심의 결정.

2006

- 02.13** 「의견 표명이나 비평에 대해선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언론 자유의 본질을 정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 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반론 청구의 낚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 발표.
- 02.24** 25일까지 제주도 서귀포KAL호텔에서 「언론인의 건강과 리더십 그리고 시장경제와 언론」을 주제로 '언론인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 만들기' 제1회 워크숍 개최.
· 주제발표: 김종래 조선일보 출판국장
홍혜걸 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
김광태 삼성전자 홍보팀 전무
- 02.27**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68차 심의위를 열고, 새로 선출된 외국 대통령과 총리급 인사 10여 명의 표기를 심의, 통일해서 적기로 결정.
- 03.07**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글레프 이바센초프(Gleb A. IVASHENTSOV)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청, '한·러 관계'를 주제로 제61회 편협대화 개최.
- 03.31** 4월 1일까지 제주도 제주KAL호텔에서 「열린우리당을 맡으면서」를 주제로 편집집·보도국장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
- 04.13**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郎) 주한일본대사를 초청, 「21세기 북동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주제로 제62회 편협대화 개최.
- 04.28** 29일까지 제주도 서귀포KAL호텔에서 「리더십, 재테크, 시장경제와 언론」을 주제로 「언론인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 만들기」 제2회 워크숍 개최.
주제발표: 송길원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 대표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
최우석 삼성전자 상담역

- 05.25**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69차 심의위를 열고, 독일 월드컵 출전 32개국 대표명과 새로 선출된 이탈리아 베냉 대통령과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 7개국 총리의 이름을 심의, 바르게 적기로 결정.
- 06.23** 24일까지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리더십, 시장경제와 언론, 스트레스 극복법과 암의 예방」을 주제로 ‘언론인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 만들기’ 제3회 워크숍 개최.
· 주제발표: 한홍 온누리교회 목사
최우석 삼성전자 상담역
이무석 전남의대 정신과 주임교수
- 06.30** 「신문시장 점유율을 규제한 신문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번 현재 결정은 신문시장의 점유율 규제가 몇몇 비판 언론을 옥죄기 위한 표적 입법이었음을 명백히 확인해준 것으로, 정부와 여야 정당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비판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중단하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전면적인 손질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는 성명 발표.
- 07.25**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70차 심의위를 열고, 크리스, 데비 등 금년에 배분된 허리케인(카리브 해, 멕시코만과 북대서양) 이름을 심의, 바르게 적기로 결정.
- 09.08** 9일까지 제주도 제주KAL호텔에서 「혁신조직과 리더십, 중풍예방과 웰빙 건강법」을 주제로 ‘언론인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 만들기’ 제4회 워크숍 개최.
· 주제발표: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과 교수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원장
- 09.13**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71차 심의위를 열고, 체코 총리 토폴라네크, 정치인 메드베데프, 실업가 리카싱, 경영인 인드라 누이 등의 이름을 심의, 바르게 적기로 결정.
- 10.20** 21일까지 속초 설악파크호텔에서 「편집과 사진」을 주제로 편집 · 사진부장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조시행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편집고문

구자호 상명대 예술디자인대학원 사진학과 초빙교수

- 10.25**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신문협회와 공동으로 「韓日관계 재정비 방향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제43회 한·일 편집간부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이동관 동아일보 논설위원(한국측)
호리 신이치로 마이니치신문 외신부 부부장(일본측).
- 11.01**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72차 심의위를 열고, 노벨상 6개 부문 수상자와 일본 아베 연립 내각, 총리 보좌관들의 이름을 심의, 바르게 적기로 결정.
- 11.17** 18일까지 제주도 서귀포KAL호텔에서 「Aging Power, 건강과 생활」을 주제로 '언론인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 만들기' 제5회 워크숍 개최.
· 주제발표: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
이종수 경희대 경희의료원 재활의학과 교수
- 12.06**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73차 심의위를 열고, 미국의 새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 빌 멀린다 게이츠 기금 공동 회장 멀린다 게이츠, 브라질 건축가 오스카르 (소아리스 필류) 니에메예르와 WHO 사무국장 천평푸전 등의 이름을 심의, 바르게 적기로 결정.
- 12.08** 9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한국 신문 Opinion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설·해설위원 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
정진홍 중앙일보 논설위원